

국립국어원 2014-01-65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561-01

2014년 방송언어 개선 사업
-재난방송언어 사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연구 책임자
김미형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한 ‘2014 방송언어개선사업: 재난방송언어 사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기간: 2014년 5월 1일 ~ 2014년 11월 30일

2014년 12월 20일

연구책임자: 김미형(상명대학교)

연구기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미형

공동연구원: 서은아, 김형주

보조연구원: 주재희, 최민지

2014 방송언어개선사업 재난방송언어 사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 이 연구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재난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재난방송언어 사용지침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014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를 보도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 4곳(KBS1 뉴스 9, KBS2 아침뉴스마당, MBC 뉴스데스크, SBS 8 뉴스)과 종합편성채널 4곳(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 8, JTBC 뉴스 9, TV 조선 뉴스1)의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함.
- 연구 대상 뉴스 프로그램에 사용된 방송언어를 간략 전사한 다음, 규범성(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정확성(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품격성(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공정성(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용이성(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등 5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오류 유형을 분석함.
- 연구 결과, 정확성 항목의 추상적 표현 19.3%, 용이성 항목의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13.8%, 정확성 항목의 추측에 근거한 표현 12.9%, 품격성 항목의 자극적 표현 10.7%, 공정성 항목의 편파적 표현 9.4%, 정확성 항목의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8.2%, 정확성 항목의 과장된 표현 6.3% 순으로 나타났음.
- 이 연구를 통해 이번 세월호 재난방송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는 물론 정부를 조롱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으며, 정보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 상황’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피해 상황’은 과장하거나 극적·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함.

(01) 재난방송은 재난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어문규범에 맞는 표현과 문장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02) 재난방송은 재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나 구

체적인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 (03) 재난방송에는 가급적 추측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추측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측에 근거한 표현임을 밝혀야 한다.
- (04) 재난방송에는 재난 관련 상황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과장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05) 재난방송에서 '피해 상황'은 추상적으로 표현해야 하지만 '구조 상황'을 추상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 (06) 재난방송에서 '피해 상황'은 지나치게 자극적·극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 (07) 재난방송에는 앵커나 기자(혹은 리포터)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08) 재난방송에는 일체의 차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09) 재난방송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10) 재난방송에는 재난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2014 방송언어개선사업 재난방송언어 사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이 연구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재난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재난방송언어 사용지침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를 보도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 4곳(KBS1 뉴스 9, KBS2 아침뉴스마당, MBC 뉴스 데스크, SBS 8 뉴스)과 종합편성채널 4곳(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 8, JTBC 뉴스 9, TV 조선 뉴스1)의 뉴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뉴스 프로그램에 사용된 방송언어는 간략 전사(broad transcription)한 다음, 규범성(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정확성(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품격성(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공정성(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용이성(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등 5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확성 항목의 추상적 표현 19.3%, 용이성 항목의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13.8%, 정확성 항목의 추측에 근거한 표현 12.9%, 품격성 항목의 자극적 표현 10.7%, 공정성 항목의 편파적 표현 9.4%, 정확성 항목의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8.2%, 정확성 항목의 과장된 표현 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이번 세월호 재난방송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는 물론 정부를 조롱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으며, 정보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조 상황’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피해 상황’은 과장하거나 극적·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01) 재난방송은 재난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어문규범에 맞는 표현과 문장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02) 재난방송은 재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 (03) 재난방송에는 가급적 추측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추측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측에 근거한 표현임을 밝혀야 한다.

- (04) 재난방송에는 재난 관련 상황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과장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05) 재난방송에서 '피해 상황'은 추상적으로 표현해야 하지만 '구조 상황'을 추상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 (06) 재난방송에서 '피해 상황'은 지나치게 자극적·극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 (07) 재난방송에는 앵커나 기자(혹은 리포터)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08) 재난방송에는 일체의 차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09) 재난방송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10) 재난방송에는 재난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주요어: 세월호, 재난방송언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와 한자어, 뉴스 정보 출처 표시

| 차례 |

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대상	1
1.3. 연구 배경	3
1.4. 연구 방법	7
1.5. 연구 일정 및 추진을	10
2. 재난방송언어 사용 실태	12
2.1. 재난방송언어 통계 조사	12
2.2. 항목별 오용 사례	17
3. 재난방송언어 개선 방안	42
3.1. 개요	42
3.2.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42
4. 결론	51
참고문헌	55
Abstract	57
<부록> 방송사별 재난방송언어 오용 사례	59

1. 서론

1.1.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일환으로 재난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올바른 재난방송언어 사용지침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적인 미디어는 텔레비전이다. 한국언론재단이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2013)’에 따르면 하루 평균 텔레비전 이용률은 176.9시간으로 인터넷 이용률¹⁾ 116.3시간보다 앞선다. 이에 따라 방송언어는 현실적으로 표준 언어(standard language)이자 모델 언어(model language)이며 공중의 관용어(public idiom)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임태섭, 1999:3).
- 이와 관련하여 이주행·류춘열(2004:3)은 방송언어가 건전하지 못하면 그 사회 구성원의 언어 습관은 물론이요 가치 체계까지도 건전하지 않은 형태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하고, 김현주(2006:4)도 “잘못된 방송언어는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반영하거나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뉴스 보도, 특히 재난보도를 분석하여 재난방송언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1.2. 연구 대상

- 이 연구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뉴스에 사용된 ‘방송언어’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재난방송언어’로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재난방송’의 정의를 보면 재난방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뜻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재난의 정의’를 보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포함된다.

1) 인터넷 이용률은 이동형 인터넷(53.7시간)과 고정형 인터넷(62.6시간) 이용률을 모두 합한 수치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재난의 범위’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규정되어 있다.

○ 이 연구의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2014년 4월 16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를 보도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 4곳(KBS1 뉴스 9, KBS2 아침뉴스마당, MBC 뉴스데스크, SBS 8 뉴스)과 종합편성채널 4곳(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 8, JTBC 뉴스 9, TV 조선 뉴스1)의 뉴스 프로그램으로 한다. 각 뉴스 프로그램의 방송 요일과 방송 시작 시간은 <표1>과 같다.

방송사		프로그램 이름	방송 요일	시작 시간
지상파	KBS1	뉴스9	매일	21:00
	KBS2	아침뉴스타임	월~금	08:00
	MBC	뉴스데스크	매일	19:55
	SBS	8뉴스	매일	20:00
종합편성	채널A	종합뉴스	매일	21:40
	JTBC	뉴스9	월~금	21:00
	MBN	뉴스8	매일	19:40
	TV조선	뉴스1	월~금	12:50

<표1> 각 뉴스 프로그램별 방송 요일과 시작 시간

-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은 시청률이 가장 높은 저녁뉴스로 했으며, 저녁뉴스가 없는 채널은 아침뉴스에서 선정했다.
- 분석 대상 언어는 방송인(앵커, 아나운서, 기자, 리포터 등)의 말과 자막으로 한정한다. 인터뷰에 응한 일반 시민이나 외부 전문가의 말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 분석 대상 프로그램의 분석 대상 음절수는 다음 <표2>와 같다.

연월일 \ 방송사	KBS1	KBS2	MBC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합계
2014. 4. 16.(수)	15,284	방송제외	22,206	16,272	9,904	13,242	11,225	15,965	82,990
2014. 4. 17.(목)	25,085	13,717	28,068	21,604	17,793	20,842	12,335	14,600	154,044
2014. 4. 18.(금)	27,754	7,979	28,762	24,066	15,688	21,412	10,189	16,298	152,148
2014. 4. 19.(토)	24,101	방송없음	24,195	17,708	9,557	20,094	8,474	방송없음	104,129
2014. 4. 20.(일)	28,833	방송없음	21,665	14,402	9,017	17,701	9,011	방송없음	100,629
2014. 4. 21.(월)	15,886	10,395	18,571	13,601	10,875	21,156	11,492	7,593	109,569
2014. 4. 22.(화)	14,923	11,769	16,861	13,992	10,817	16,658	9,427	10,631	105,078

2014. 4. 23.(수)	14,511	10,503	11,471	11,537	11,669	21,313	8,194	7,355	96,553
2014. 4. 24.(목)	13,597	12,113	10,237	11,356	10,721	19,406	8,321	7,275	93,026
2014. 4. 25.(금)	12,818	10,046	10,535	10,248	8,312	18,831	9,977	5,752	86,519
2014. 4. 26.(토)	9,715	방송없음	6,982	6,718	6,983	15,238	6,387	방송없음	52,023
2014. 4. 27.(일)	10,069	방송없음	8,196	7,823	7,052	13,772	7,542	방송없음	54,454
2014. 4. 28.(월)	14,453	7,732	9,684	8,535	7,732	16,527	7,413	6,704	78,780
2014. 4. 29.(화)	10,090	4,219	7,796	7,906	2,411	14,821	5,311	4,672	57,226
2014. 4. 30.(수)	11,913	4,757	9,234	7,384	9,226	14,918	6,855	5,109	69,396
합계	249,032	93,230	234,463	193,152	137,863	265,931	120,939	101,954	1,396,564

<표2> 각 뉴스 프로그램별 방송 요일별 음절수

1.3. 연구 배경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세월호 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조사 항목으로 (1) 불필요한 외래어와 외국어, (2) 부정확한 표현과 비문법적 표현, (3) 자막의 띄어쓰기 오류와 맞춤법 오류, (4) 발음 오류 등을 분석하였다.
- 재난방송의 내용과 관련하여 NHK 지침서에서는 보도단계, 방재단계, 부흥단계로 세분한 다음, 보도단계에서는 재난 사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정보와 피해 관련 소식을 전하고, 방재단계에서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활 정보를, 부흥단계에서는 공동체 복원에 필요한 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성해, 2014:13). 이와 관련하여 각 단계를 기능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순간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조 활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피해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단계를 ‘사건 보도 단계’, 그 다음으로 사고의 원인 및 영향을 진단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단계를 ‘사건 평가 단계’, 끝으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하는 단계를 ‘사건 예방 단계’라고 명명할 수 있다.
- 재난방송의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NHK의 ‘신방송 가이드라인(2006)’에서는 ‘크다, 심하다, 매섭다’ 등의 과장된 표현이나 ‘~할 것 같다’ 등의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울부짖는 사람의 영상이나 유족을 인터뷰하는 영상을 방송하지 않고, 정부의 대처가 늦어지고 있다는 불평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망자 통계는 보수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김성해, 2014:13). 여기에 덧붙여 침착한 방송 태도를 요구한다. 아나운서가 침착함을 잃어버리면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껴 패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후지모토 도시카즈, 2011:77).
- BBC의 편집지침서(Editorial Guideline, 2002)는 상충하는 주장이 있을 경우 해당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사망자 숫자는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추정치로 소개하며, 굳이 피해자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김성해, 2014:12).

- 국제언론인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의 재난과 분쟁 보도(Disaster and Crisis Coverage, 2010) 보도 지침에는 “침착할 것, 명확할 것, 정확할 것, 배려할 것,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긴장감 또는 공포심이 생기지 않도록 어휘를 신중하게 선택할 것,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것, 목소리의 톤과 크기, 높낮이, 빠르기에 주의할 것”²⁾ 등이 명시되어 있다(Deborah Potter & Sherry Ricchiardi, 2010:30). 아울러 가능한 한 상세하게 보도할 것(목격자의 말이라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며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 추측에 근거한 보도를 피할 것(모든 정보는 실명을 밝힐 수 있는 취재원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취재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복수의 취재원을 활용할 것(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나 업계 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맥락을 제공할 것(시청자가 사건의 전후 사정을 오해하지 않도록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신중하게 질문할 것(대답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별 질문 요령이 필요하다)³⁾ 등이 명시되어 있다(Deborah Potter & Sherry Ricchiardi, 2010:31).
- 미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NSTC)의 긴급방송시스템 재난방송 권고안에는 경보메시지의 내용과 관련하여 “메시지는 간결해야 한다, 개조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재난상황에 대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이동훈 외, 2006:85).
- 로이터통신의 비극과 저널리스트-효율적인 취재를 위한 가이드(DART Center for journalism and trauma)에서는 피로 얼룩진 이미지처럼 지나치게 과도한 표현이나 기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희생자의 슬픔을 방해하거나 사적인 장소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유승관, 2014:20~2)
-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 사고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언론의 보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표면화되면서 재난보도준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언론연구원은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준칙과 보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1996)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크게 3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취재 일반 및 방송 일반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Stay calm. Be clear, accurate and compassionate. Choose words carefully to avoid enflaming a situation or causing additional stress or panic. Describe the scene and be specific. Broadcasters should watch their tone and be aware of volume, pitch and pacing. 이하 방송언어 사용과 무관한 항목은 생략함.

3) (1) Inform as fully as possible, (2) Avoid speculation, (3) Use multiple sources, (4) Provide context, (5) Phrase questions carefully. 이하 방송언어 사용과 무관한 항목은 생략함.

- 재난보도는 피해자의 상황과 희망을 사려 깊게 고려하여 새로운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재난보도는 비윤리적인 취재와 선정적인 보도를 근절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프라이버시나 명예, 심리적 안정을 침범하거나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종일 현장 생중계 방송은 방송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되, 피해 지역의 불필요한 자극이나 공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려 깊게 진행해야 한다.

-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사고 직후, 한국언론재단과 한국기자협회는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재난보도 준칙 제정 방안'(2003) 마련을 위한 기자포럼을 개최한 자리에서 <보도 매뉴얼>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때 논의된 보도준칙은 1996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에도 <보도 매뉴얼>의 부재를 지적하는 토론회가 연일 개최되었다. 한국기자협회는 2014년 4월 23일 '세월호 참사 보도 문제점과 재난보도 준칙 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방송기자연합회는 2014년 5월 13일 '배척받는 방송, 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재난재해 취재 보도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가운데 2014년 4월 20일 한국기자협회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 재난방송의 언어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는 선정적인 어휘 사용 자제가 유일하다.
- 2014년 9월 16일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하여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단체 5곳이 <재난보도준칙>을 공동으로 제정해 발표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 가운데 가장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1조(공적 정보의 취급) 피해 규모나 피해자 명단, 사고 원인과 수사 상황 등 중요한 정보에 관한 보도는 책임 있는 재난관리당국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에 따르되 공식 발표의 진위와 정확성에 대해서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 공식 발표가 늦어지거나 발표 내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자체적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되 정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검증하고 자체 취재임을 밝혀야 한다.

제12조(취재원에 대한 검증) 재난과 관련해 인터뷰나 코멘트를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뢰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재난 발생 시 급박한 취재 여건상 충실한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평소 검증된 재난 전문가들의 명단을 확보해 놓고 수시로 검증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취재원을 검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3조(유언비어 방지)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제14조(단편적인 정보의 보도) 사건 사고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KBS 재난방송 매뉴얼(2011)은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방송”할 것과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냉정하고 침착하게 보도”할 것, “단순한 현장 상황 전달보다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데 우선 노력”할 것, “사실과 관련 없는 주관적인 논평이나 감정 표현을 자제하며 본질을 호도할 수 있는 즉흥적이거나 흥미 위주의 보도”를 지양할 것, “신중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할 것,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의 통계 발표는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보도”할 것 등이 명시되어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9. 개정)’을 보면 제9조 ‘공정성’ 항목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특정인 혹은 특정 단체에 유리하게 사실을 오도하는 일이나 성과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차별을 금지한다. 제14조 ‘객관성’ 항목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15조 ‘출처명시’ 항목에서는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인용 보도를 할 때 출처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2조 ‘방송언어’ 항목에서는 표준어의 사용과 함께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을 사용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12월 6일에 신설된 ‘재난보도’ 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의 2(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재난 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 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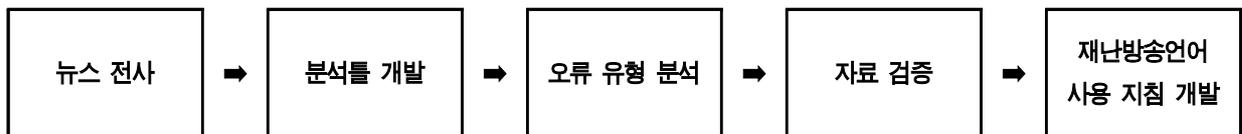
된다.

제24조의3(재난방송의 내용) 재난방송은 피해 현장, 복구상황,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모습 등을 지나치게 선정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함으로써 시청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불필요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국내 방송사의 방송 강령을 보면 KBS는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할 것(제4항), 인용 보도의 사실을 확인할 것(제7항), 찬반 쟁점의 쌍방 의견을 제시할 것(제8항), 정부 발표의 사실을 확인할 것(제9항) 등을 제시하고, MBC는 “되도록 알기 쉽게” 표현할 것과 “대중에게 공포나 불안 또는 불쾌감을 주는 품위 없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제시한다. 아울러 ‘보도 프로그램 기준’으로 ‘정확성’⁴⁾과 ‘불편 부당성’을 강조한다. SBS의 보도 윤리 강령은 찬반 쟁점의 쌍방 의견을 제시할 것과 정부 발표의 사실을 확인할 것 등을 제시하고, EBS의 방송 강령은 “되도록 알기 쉽게” 표현할 것과 “시청자에게 공포나 불안 또는 불쾌감을 주는 품위 없는 언어”를 사용하지 말 것을 제시한다.

1.4. 연구 방법

- 이 연구는 다음 <표3>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우선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를 보도한 뉴스를 전사한 다음,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을 제안하였다.



<표3> 연구 절차

- 뉴스 전사

- 인터뷰에 응한 일반 시민과 외부 전문가를 제외한, 자막과 방송인(앵커, 아나운서, 기자, 리포터 등)의 말을 모두 전사한다.

4) 정확성이란 실제의 현실과 보도된 현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토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단일한 취재원으로부터 나온 정보를 기사화하는 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확성은 결코 단편적인 사실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프로그램 담당자는 언제나 사실을 정확히 취재하고, 그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도 충분히 조사하여 사안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기본적인 어휘 계량 분석을 위해 준언어기호와 비언어기호에 대한 전사는 생략한 약식 전사 방식을 활용한다.

○ 분석틀 개발

- 방송언어의 어휘 사용 실태와 방송언어의 평가 기준 및 평가 지수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분석틀을 개발한다.
- 방송언어의 어휘 사용 실태를 살핀 연구로는 박갑수(1985, 1987), 신상현(1986), 김상준(1990), 정경규(1991), 최진근(1985, 1993), 윤재홍(2005), 정수희(2007), 조민하(2013), 박덕유 외(2014) 등이 있다. 최진근(1993)은 한자어, 외래어, 동의중복어, 동음충돌어, 금기어, 방언, 신어, 약어, 호칭어·지칭어 사용 실태를, 윤재홍(2005)은 비규범적 표현, 순화대상어, 혼동하기 쉬운 표현, 외래어와 외국어, 상투적인 표현, 권위적 표현 사용 실태를, 정수희(2007)는 외래어 사용 실태를, 조민하(2013)는 비표준어 사용 실태를, 박덕유 외(2014)는 어문규범을 위배한 표현과 저속한 표현(인격 모독 표현, 차별적 표현, 폭력적 표현, 은어 및 통신어, 비속어, 선정적 표현, 불필요한 외국어 외래어) 사용 실태 등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 방송언어의 평가기준 및 평가지수를 살핀 연구로는 임태섭(1996, 2001), 민현식(1999), 이주행·류춘열(2004), 주창윤 외(2013) 등이 있다. 임태섭(1996, 2001)의 평가기준은 순정성(외래어·외국어, 일본식 한자어, 유행어, 욕설, 비하어, 은어, 사투리, 표준발음 왜곡), 공식성(반말, 비속어, 선정적 표현, 극단적 표현, 과장어, 부적절한 호칭), 공손성(비난하는 말), 공정성(차별적 표현, 권위적 표현, 오보, 말실수), 세련성(부자연스러운 표현, 부자연스러운 어순, 부적절한 어휘), 용이성(어려운 한자어와 외국어, 전문용어, 구조가 복잡한 문장, 긴 문장) 등으로 구성된다. 민현식(1999)은 내용 조건으로 객관성, 정확성, 사실성(과장적 표현이나 추측 표현, 유언비어, 차별적 표현 포함)을, 형식 조건으로 표준어법(감정적 자극하는 선정적 표현, 선동적 표현), 입말법(구어체 사용), 논리어법(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및 외래어, 전문용어, 약어 포함)을 제시한다. 이주행·류춘열(2004)은 내용 항목으로 공정성(차별적 표현, 특정 집단 전문용어, 특정 집단 관점 옹호), 객관성(극단적 표현, 과장 표현), 사실성(추측 표현, 거짓 표현), 건전성(선정적 표현), 교양성(부정확하거나 불

필요한 지식), 쾌락성(재치가 부족한 표현), 풍자성(조롱적 표현, 공격적 표현), 교시성을, 형식 항목으로 순정성(비속어, 유행어, 외래어, 문장성분의 오용, 번역 투, 부정확한 발음, 높임법 위배), 공식성(비표준어, 부적절한 호칭과 지칭), 세련성(동일 단어, 연결어미, 문장 사용, 진부한 어구 사용), 용이성(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 한자어 사용, 약어, 전문용어, 70음절 이상의 장문, 구조한 복잡한 복문)을 제시한다. 김한샘(2011)은 평가기준으로 정확성을 내용(잘못된 정보 전달, 사실 확대 및 축소)과 표현(부정확한 발음, 부절절한 어휘, 비문법적 문장, 언어 예절에 어긋난 표현, 어문 규범에 어긋난 표현)으로 나누고, 이외에도 품격성(폭력적 표현, 비속어, 욕설), 공정성(차별적 표현, 인격 모욕적 표현, 특정 이익 집단의 용어 사용 및 주장 옹호), 용이성(어려운 외래어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신조어, 현학적 표현) 등을 제시한다. 주창윤 외(2013)는 보도교양프로그램의 분석기준으로 공정성(개인의 견해를 전체처럼 주장하는 표현, 편파적 표현, 특정인이나 단체에 유리한 표현)과 객관성(명확하지 않은 표현, 사실적 근거한 부족한 표현, 통계나 인터뷰 등 부적합한 인용 표현, 사실과 논평의 구분이 없는 표현)을 제시한다.

-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을 반영하되 세월호 재난방송언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할 분석틀을 다음 <표4>와 같이 개발하였다.

대분류	소분류	설 명
규범성	(01) 비규범적 표현	어문규범을 지키지 않은 표현
	(02) 부자연스러운 표현	문장성분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
정확성	(03)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사실 확인을 했더라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04) 추측에 근거한 표현	추측이나 소문에 근거한 표현
	(05) 과장된 표현	사건이나 상황을 강조하거나 부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한 표현
	(06) 추상적 표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모호한 표현
품격성	(07) 자극적 표현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자극적 표현
	(08) 저속한 표현	비속어, 은어, 신조어, 유행어 표현
공정성	(09) 감정적 표현	감탄사나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
	(10) 차별적 표현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직업, 연령, 종교, 성에 대한 차별적 표현
	(11) 편파적 표현	특정인 혹은 특정 단체에 대한 부정적 표현
용이성	(12)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사용
	(13)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순화어가 있는데 순화어를 사용하지 않은 외래어나 한자어 표현

<표4> 재난방송언어의 평가기준

○ 오류 유형 분석

- 하나의 예문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중복해서 계산한다.
- 비규범적 표현은 어휘 차원, 부자연스러운 표현은 문장 차원,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표현은 문단 차원에서 오류를 계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문단 차원의 오류 빈도는 어휘 차원이나 문장 차원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단, 어휘 차원의 오류나 문장 차원의 오류는 매 어휘와 매 문장마다 오류 빈도를 계산한다.
- 어휘 차원의 오류는 (01) 비규범적 표현, (05) 과장된 표현, (06) 추상적 표현, (08) 저속한 표현, (09) 감정적 표현, (10) 차별적 표현, (11) 편파적 표현, (12)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13)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등이다.
- 문장 차원(구와 절 포함)의 오류는 (02) 부자연스러운 표현, (04) 추측에 근거한 표현, (07) 자극적 표현 등이다.
- 문단 차원의 오류는 (03)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등이다.

○ 자료 검증

- 최종 결과물 자료 검증

○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개발

- 지금까지 발표된 <재난보도준칙>은 공통적으로 취재 지침에 비해 보도 지침이 부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재난방송언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을 개발한다.

1.5. 연구 일정 및 추진율

추진내용	5. 1.~ 5. 31.	6. 1.~ 6. 30.	7. 1.~ 7. 31.	8. 1.~ 8. 31.	9. 1.~ 9. 30.	10. 1.~ 10. 30.	11. 1.~ 11. 30.	추진율
선행 연구 검토 및 분석틀 개발	■	■						100%
뉴스 전사 및 실태 점검			■	■	■	■	■	100%
자료 감수			■	■	■	■	■	100%
자료 교정 및 보완							■	100%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00%
국립국어원 협의			■	■	■	■	■	100%

<표5> 연구 일정 및 추진율

2. 재난방송언어 사용 실태

2.1. 재난방송언어 통계 조사

2.1.1. 전체 통계(2014년 4월 16일 ~ 2014년 4월 30일)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72	24	107	149	122	161	180	2	50	17	162	36	129	1211	14.5
KBS2	19	18	68	77	58	53	111	2	36	18	43	17	61	581	7.0
SBS	71	65	71	199	58	292	54	13	34	5	121	27	242	1252	15.0
MBC	45	32	105	252	66	340	127	13	27	15	70	27	228	1347	16.1
MBN	45	61	119	154	59	267	59	16	21	4	86	36	140	1067	12.8
채널A	60	96	79	142	48	301	79	8	32	5	154	13	116	1133	13.6
TV조선	74	87	77	72	44	69	60	12	38	7	16	27	105	688	8.2
JTBC	102	36	60	32	67	126	226	9	101	18	137	27	131	1072	12.8
합계	488	419	686	1077	522	1609	896	75	339	89	789	210	1152	8351	100
비율(%)	5.8	5.0	8.2	12.9	6.3	19.3	10.7	0.9	4.1	1.1	9.4	2.5	13.8	100	

2.1.2. 일별 통계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1	0	25	19	25	36	27	0	9	0	6	10	0	158	14.6
SBS	9	8	23	40	26	37	39	0	3	0	5	2	9	201	18.5
MBC	2	2	40	30	28	25	41	0	8	3	4	5	0	188	17.3
MBN	13	7	38	11	24	33	34	0	8	1	10	2	2	183	16.9
채널A	4	20	19	13	14	13	27	1	6	0	9	0	2	128	11.8
TV조선	7	35	17	16	7	12	4	3	2	0	0	1	6	110	10.1
JTBC	6	0	21	8	10	14	33	0	15	2	3	4	0	116	10.7
합계	42	72	183	137	134	170	205	4	51	6	37	24	19	1,084	100
비율(%)	3.9	6.6	16.9	12.6	12.4	15.7	18.9	0.4	4.7	0.6	3.4	2.2	1.8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0	4	24	34	8	12	46	0	5	3	12	3	14	165	11.7
KBS2	0	2	27	18	3	4	36	0	5	5	11	0	8	119	8.4
SBS	6	12	24	60	15	19	4	0	18	2	17	8	29	214	15.1
MBC	0	4	27	46	6	12	51	0	8	6	9	0	22	191	13.5
MBN	4	20	22	26	11	29	11	1	7	0	10	5	14	160	11.3
채널A	16	41	29	40	13	34	26	0	14	0	21	5	20	259	18.3
TV조선	2	28	29	18	10	34	14	7	9	2	1	4	20	178	12.6
JTBC	1	0	15	13	29	11	21	0	21	2	10	1	6	130	9.2
합계	29	111	197	255	95	155	209	8	87	20	91	26	133	1,416	100
비율(%)	2.0	7.8	13.9	18.0	6.7	10.9	14.8	0.6	6.1	1.4	6.4	1.8	9.4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0	3	3	11	19	12	13	0	9	0	18	1	12	101	13.0
KBS2	2	0	2	9	14	4	13	0	9	3	4	1	7	68	8.7
SBS	9	20	3	22	10	24	6	0	6	0	15	2	18	135	17.3
MBC	1	1	1	18	8	12	16	0	9	2	6	4	10	88	11.3
MBN	3	4	5	1	3	9	0	0	0	2	6	13	6	52	6.7
채널A	11	4	13	29	8	11	13	2	6	1	19	2	16	135	17.3
TV조선	8	18	16	18	7	5	4	0	12	1	5	4	26	124	15.9
JTBC	0	1	7	6	5	8	8	0	13	2	10	1	15	76	9.8
합계	34	51	50	114	74	85	73	2	64	11	83	28	110	779	100
비율(%)	4.4	6.5	6.4	14.6	9.5	10.9	9.4	0.3	8.2	1.4	10.7	3.6	14.1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22	2	11	20	5	14	10	0	7	0	21	1	13	126	19.2
SBS	15	2	6	15	1	14	1	0	1	0	18	2	31	106	16.1
MBC	14	4	12	36	7	27	4	0	0	0	9	5	39	157	23.9
MBN	2	6	13	12	7	17	4	0	1	0	4	4	25	95	14.5
채널A	7	2	4	13	3	15	4	0	1	3	7	2	11	72	11.0
JTBC	21	6	3	5	1	9	18	0	7	2	9	3	17	101	15.4
합계	81	22	49	101	24	96	41	0	17	5	68	17	136	657	100
비율(%)	12.3	3.3	7.5	15.4	3.7	14.6	6.2	0.0	2.6	0.8	10.4	2.6	20.7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18	3	11	20	8	15	20	0	1	3	10	4	12	125	22.3
SBS	4	4	3	6	2	20	0	2	1	2	16	0	35	95	16.9
MBC	10	9	4	16	3	35	4	0	1	1	5	1	11	100	17.8
MBN	2	6	4	16	1	15	1	0	0	0	2	1	18	66	11.8
채널A	5	20	1	1	2	25	1	0	1	0	17	0	15	88	15.7
JTBC	12	1	1	1	4	7	24	0	4	0	15	1	17	87	15.5
합계	51	43	24	60	20	117	50	2	8	6	65	7	108	561	100
비율(%)	9.1	7.7	4.3	10.7	3.6	20.9	8.9	0.4	1.4	1.1	11.6	1.2	19.3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3	4	6	5	7	5	5	0	6	1	13	2	12	69	12.1
KBS2	4	4	11	15	5	7	5	0	2	2	6	0	9	70	12.3
SBS	12	13	1	2	0	15	0	3	1	0	7	1	23	78	13.7
MBC	4	7	8	27	3	32	0	4	0	2	3	1	21	112	19.7
MBN	7	6	9	16	0	23	1	4	0	0	7	5	12	90	15.8
채널A	8	1	0	0	0	0	0	0	1	0	15	0	9	34	6.0
TV 조선	0	3	4	2	2	3	11	0	3	0	2	1	8	39	6.9
JTBC	5	5	2	3	5	6	19	0	7	3	10	2	9	76	13.4
합계	43	43	41	70	22	91	41	11	20	8	63	12	103	568	100
비율(%)	7.6	7.6	7.2	12.3	3.9	16.0	7.2	1.9	3.5	1.4	11.1	2.1	18.1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2	0	7	7	7	8	10	0	5	1	9	5	11	72	12.7
KBS2	1	4	7	8	7	7	11	0	4	0	4	5	9	67	11.8
SBS	1	0	2	19	0	19	0	0	2	0	5	1	20	69	12.1
MBC	5	1	4	30	2	27	1	0	0	0	2	1	10	83	14.6
MBN	3	2	3	8	0	20	0	0	0	1	2	3	3	45	7.9
채널A	4	1	2	11	4	34	1	0	1	0	17	0	7	82	14.4
TV 조선	13	1	3	5	6	6	15	1	5	1	0	5	13	74	13.0
JTBC	3	3	3	8	3	14	14	1	10	1	6	1	9	76	13.4
합계	32	12	31	96	29	135	52	2	27	4	45	21	82	568	100
비율(%)	5.6	2.1	5.5	16.9	5.1	23.8	9.2	0.4	4.8	0.7	7.9	3.7	14.4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4	0	3	9	5	7	4	0	0	2	5	1	13	53	11.5
KBS2	2	2	9	8	5	7	4	0	4	2	5	1	5	54	11.7
SBS	5	1	2	5	0	22	0	2	0	1	4	2	12	56	12.2
MBC	3	0	3	8	2	23	1	1	0	0	3	3	8	55	12.0
MBN	5	0	5	6	2	28	2	0	0	0	1	2	2	53	11.5
채널A	1	3	3	6	0	38	2	1	1	0	2	0	9	66	14.3
TV 조선	10	0	2	3	4	5	4	0	3	1	4	2	2	40	8.7
JTBC	5	4	1	1	3	11	11	1	6	1	23	2	14	83	18.0
합계	35	10	28	67	21	141	28	5	14	7	47	13	65	460	100
비율(%)	7.6	2.2	6.1	10.0	4.6	30.7	6.1	1.1	3.0	1.5	10.2	2.8	14.1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1	2	7	4	7	10	12	1	1	2	9	0	6	62	14.1
KBS2	6	2	5	6	10	4	4	0	2	3	4	3	6	57	12.5
SBS	2	2	3	7	1	23	0	0	0	0	9	0	13	49	13.7
MBC	0	2	0	7	3	19	0	0	0	1	12	2	5	51	11.6
MBN	1	1	7	11	2	29	0	0	0	0	4	0	4	59	13.4
채널A	0	2	1	3	1	23	2	3	0	0	8	1	5	49	11.2
TV 조선	5	0	3	3	2	6	4	1	2	1	2	0	10	39	8.9
JTBC	12	3	1	3	0	12	12	1	3	2	9	0	6	64	14.6
합계	27	14	27	44	26	126	34	6	8	9	57	6	55	439	100
비율(%)	6.2	3.2	6.2	10.0	5.9	28.7	7.7	1.4	1.8	2.1	13.0	1.4	12.5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10	2	1	3	4	8	11	0	0	1	2	1	4	47	10.5
KBS2	0	2	4	2	5	8	9	1	3	3	6	4	8	55	12.3
SBS	2	1	0	5	0	24	4	0	0	0	12	1	11	60	13.4
MBC	3	0	1	2	0	33	4	0	0	0	7	0	5	60	13.4
MBN	0	2	1	17	0	33	0	4	1	0	12	0	4	74	16.5
채널A	2	0	2	2	0	19	1	0	0	0	9	0	6	41	9.2
TV 조선	12	1	2	2	0	2	2	0	0	0	0	3	7	31	6.9
JTBC	18	4	1	12	0	5	12	0	4	1	11	3	9	80	17.9
합계	47	12	12	50	9	132	43	5	8	5	59	12	54	448	100
비율(%)	10.5	2.7	2.7	11.2	2.0	29.5	9.6	1.1	1.8	1.1	13.2	2.7	12.1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1	1	2	2	3	10	2	0	1	1	10	1	3	37	13.0
SBS	1	1	0	1	2	22	0	0	1	0	4	2	8	42	14.8
MBC	0	0	1	6	0	14	2	0	1	0	1	0	11	36	12.7
MBN	1	2	0	4	2	19	4	0	1	0	1	0	16	50	17.6
채널A	1	1	1	11	2	29	1	0	1	1	9	0	5	62	21.8
JTBC	8	3	1	4	0	5	9	4	3	0	9	5	6	57	20.1
합계	12	8	5	28	9	99	18	4	8	2	34	8	49	284	100
비율(%)	4.2	2.8	1.8	9.9	3.2	34.9	6.3	1.4	2.8	0.7	12.0	2.8	17.3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1	1	0	0	3	4	4	0	0	1	7	2	9	32	15.1
SBS	2	0	1	6	1	16	0	2	0	0	1	0	5	34	16.0
MBC	1	0	0	6	2	15	1	2	0	0	2	3	5	37	17.5
MBN	2	3	1	3	5	17	0	2	0	0	4	0	5	42	19.8
채널A	0	0	1	3	1	16	1	0	0	0	3	1	3	29	13.7
JTBC	7	1	0	0	1	5	7	2	1	1	7	0	6	38	17.9
합계	13	5	3	18	13	73	13	8	1	2	24	6	33	212	100
비율(%)	6.1	2.4	1.4	8.5	6.1	34.4	6.1	3.8	0.5	0.9	11.3	2.8	15.6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2	1	3	6	8	8	8	0	2	1	10	1	7	57	17.2
KBS2	1	1	0	2	3	7	16	1	3	0	1	1	4	40	12.1
SBS	0	0	1	3	0	16	0	2	0	0	3	2	7	34	10.3
MBC	2	0	3	8	2	27	2	2	0	0	3	0	8	57	17.2
MBN	1	0	4	8	1	12	0	4	1	0	12	0	8	51	15.4
채널A	0	0	0	2	0	16	0	0	0	0	6	0	1	25	7.6
TV 조선	5	0	0	1	1	1	1	0	1	1	1	3	4	19	5.7
JTBC	9	2	1	4	2	5	11	0	2	0	6	1	5	48	14.5
합계	20	4	12	34	17	92	38	9	9	2	42	8	44	331	100
비율(%)	6.0	1.2	3.6	10.3	5.1	27.8	11.5	2.7	2.7	0.6	12.7	2.4	13.3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2	1	1	5	7	5	3	1	3	0	13	3	3	47	17.0
KBS2	1	1	2	7	4	2	8	0	2	0	1	2	1	31	11.2
SBS	3	1	1	5	0	13	0	0	1	0	1	2	7	34	12.3
MBC	0	2	1	2	0	11	0	4	0	0	1	0	5	26	9.4
MBN	0	1	5	5	0	13	1	1	0	0	7	0	11	44	15.9
채널A	0	1	1	3	0	9	0	1	0	0	2	0	0	17	6.1
TV 조선	6	1	1	2	1	3	1	0	0	0	1	4	4	24	8.7
JTBC	13	1	2	5	0	7	12	0	3	1	4	1	5	54	19.5
합계	25	9	14	34	12	63	25	7	9	1	30	12	36	277	100
비율(%)	9.0	3.2	5.1	12.3	4.3	22.7	9.0	2.5	3.2	0.4	10.8	4.3	13.0	100	

채널	규범성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		합계	비율 (%)
	비규범적 표현	부자연스러운 표현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추측에 근거한 표현	과장된 표현	추상적 표현	자극적 표현	저속한 표현	감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편파적 표현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KBS1	5	0	3	4	6	7	5	0	1	1	17	1	7	57	16.8
KBS2	2	0	1	2	2	3	5	0	2	0	1	0	4	22	6.5
SBS	0	0	1	3	0	6	0	2	0	0	3	2	14	31	9.1
MBC	0	0	0	5	0	28	0	0	0	0	3	2	22	60	17.6
MBN	1	1	2	10	1	20	1	0	1	0	4	1	10	52	15.3
채널A	1	0	2	5	0	19	0	0	0	0	10	2	7	46	13.5
TV 조선	6	0	0	2	4	2	0	0	1	0	0	0	5	20	5.9
JTBC	2	2	1	5	4	0	15	0	2	0	5	2	11	49	16.4
합계	17	3	10	36	17	92	26	2	7	1	43	10	76	340	100
비율(%)	5.0	0.9	2.9	10.6	5.0	27.1	7.6	0.6	2.1	0.3	12.6	2.9	22.4	100	

2.2. 항목별 오용 사례

1) 규범성

(01) 비규범적 표현

○ 방송언어는 어문규범에 비해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언어 표준화에 기여해야 한다(윤재홍, 2005: 109). 특히 뉴스 프로그램은 전문 방송인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어문규범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차재은(2003:43~45)은 방송언어의 오류를 중심으로 어문규범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 오류 표현이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언어 사용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문규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방송언어의 오류를 언어 변화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수희(2007:42)도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그렇지만 방송언어에서

어문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권장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문규범을 준수 하되, 오류 빈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어문규범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방 송언어사용지침에서 이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어문규범에 어긋나는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KBS가 입수한 해경과 선사측이 탑승인원을 갖고 실갱이하던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2014. 4. 16.) → KBS가 입수한 해경과 선사측이 탑승인원을 두고 실랑이하던 당시 상황을 들어보시죠.
		○ [자막] 폐가처럼 위장… 뒷편엔 호화 주택 (2014. 4. 24.) → [자막] 폐가 처럼 위장… 뒤편엔 호화 주택
		○ 수학여행을 간다며 자신의 차에 올랐던 아이들 그 설레임 가득했던 아이 들의 얼굴이 떠올라 이곳을 찾았습니다. (2014. 4. 25.) → 수학여행을 간다 며 자신의 차에 올랐던 아이들 그 설렘 가득했던 얼굴이 떠올라 이곳을 찾았 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 화면 <u>보시면서</u>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 4. 20.) → 화면을 <u>보면서</u> 말씀 드리겠습니다.
SBS	8뉴스	○ 어떤 사고가 나야지 이런 큰 선박이 이런 방식으로 뒤집혀지는 겁니까? (2014. 4. 16.) → 어떤 사고가 나야 이렇게 큰 선박이 이런 방식으로 <u>뒤집히</u> 는 겁니까?
채널A	종합뉴스	○ 사고 닻새 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런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2014. 4. 21.) → 사고 닻새 전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u>사랑스러운</u>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 [자막] <u>요상한</u> 명함 속 은닉재산 수수께끼 (2014. 4. 21.) → <u>이상한</u> 명함 속 은닉 재산 수수께끼
JTBC	뉴스9	○ 이 같은 선회라면 배 안에서 뭔가 <u>사단이</u> 났을 수도 있다 (2014. 4. 19.) → 이 같은 선회라면 배 안에서 뭔가 <u>사달이</u> 났을 수도 있다
		○ [자막] 주소 누르면 악성 <u>어플리케이션</u> 설치돼 (2014. 4. 19.) → [자막] 주소 누르면 악성 <u>애플리케이션</u> 설치돼
MBN	뉴스8	○ [자막] 뱃머리 20m만 남기고 <u>바다</u> 속으로 가라앉아 (2014. 4. 16.) → [자막] 뱃머리 20m만 남기고 <u>바닷속</u> 으로 가라앉아
		○ [자막] 해도에 없는 암초 충돌 가능성 <u>작아</u> (2014. 4. 16.) → [자막] 해 도에 없는 암초 충돌 가능성 <u>적어</u> ※ '가능성이'와 자연스럽게 호응할 수 있는 형용사 서술어 목록에는 '크다, 적다, 많다, 높다, 낮다' 등이 있음. '가능성이 크다'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작 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이지 않고 있음.
TV조선	뉴스1	○ 안개가 좀 짙은 안개가 <u>껴져</u> 있어서 (2014. 4. 16.) → 좀 짙은 안개가 <u>껴</u> 있어서
		○ [자막] 단원고, 합동 <u>분양소</u> 마련할 예정 (2014. 4. 17.) → [자막] 단원고, 합동 <u>분향소</u> 마련할 예정

■ 자막의 띄어쓰기 오류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자막] “떨어지고 쏠리고”… 화물 고정 <u>안해</u> (2014. 4. 21.) → [자막] “떨어지고 쏠리고”… 화물 고정 <u>안 해</u>
MBC	뉴스데스크	○ [자막] 164명 무사구조… <u>이중</u> 학생은 78명 (2014. 4. 16.) → [자막] 164명 무사 구조… <u>이 중</u> 학생은 78명
SBS	8뉴스	○ [자막] 인천-제주 항로, 年 <u>11만명</u> 이용 (2014. 4. 16.) → [자막] 인천-제주 항로, 年 <u>11만 명</u> 이용
채널A	종합뉴스	○ [자막] 완전히 <u>물 속으로</u> … ‘객실 진입’ 했지만 (2014. 4. 18.) → [자막] 완전히 <u>물속으로</u> … ‘객실 진입’ 했지만
JTBC	뉴스9	○ [자막] 선장 <u>이씨</u> , 경력 30년 ‘베테랑’ (2014. 4. 16.) → [자막] 선장 <u>이 씨</u> , 경력 30년 ‘전문가’
MBN	뉴스8	○ [자막] 학교 체육관 모여 <u>구조소식</u> ‘촉각’ (2014. 4. 16.) → 학교 체육관 모여 <u>구조 소식</u> ‘촉각’
TV조선	뉴스1	○ [자막] 정홍원 총리 “사고현장 상주하며 <u>부처간</u> 조율” (2014. 4. 18.) → 정홍원 총리 “사고현장 상주하며 <u>부처 간</u> 조율”

■ 자막의 문장부호 사용 오류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자막] <u>육공군도</u> 현장 구조·수색 작업 (2014. 4. 16.) → [자막] <u>육·공군도</u> 현장 구조·수색 작업
MBC	뉴스데스크	○ [자막] <u>육해공</u> 구조작업 ‘총출동’ (2014. 4. 16.) → [자막] <u>육·해·공</u> 구조작업 ‘총출동’
SBS	8뉴스	○ [자막] “지금 배 넘어 <u>갑니다</u> ” (2014. 4. 17.) → [자막] “지금 배 넘어 <u>갑니다.</u> ”
채널A	종합뉴스	○ [자막] <u>엄마 아빠</u> 찾는 지연이의 눈물 (2014. 4. 17.) → [자막] <u>엄마, 아빠</u> 찾는 지연이의 눈물
JTBC	뉴스9	○ [자막] <u>사망자</u> : 박○○, 정○○, 권○○, 임○○, 최○○ (2014. 4. 17.) → [자막] <u>사망자</u> : 박○○, 정○○, 권○○, 임○○, 최○○
MBN	뉴스8	○ [자막] 서해페리호 연상… <u>국내외</u> 여객선 참사 (2014. 4. 16.) → [자막] 서해페리호 연상… <u>국내외</u> 여객선 참사
TV조선	뉴스1	○ [자막] ‘ <u>처벌 약하다</u>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 나와(2014. 4. 24.) → [자막] “ <u>처벌 약하다.</u> ”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 나와

[참고] 문장부호의 오류는 문장부호 개정안(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전의 것을 반영하였다. 다만 말줄임표 사용에 관한 오류는 관행임을 인정하여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02) 부자연스러운 표현

- 방송언어의 규범성은 단지 어문규범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장성분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하고, 문

장성분의 중복이나 생략도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장성분의 호응은 제대로 되는지, 생략된 문장성분은 없는지, 또 중복되는 문장성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의미의 왜곡 없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문장성분의 호응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정부의 공식 실종자 발표도 갑자기 두 배로 늘기도 했습니다. (2014. 4. 16.) →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종자 수도 갑자기 두 배로 늘기도 했습니다. ※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음. 발표가 두 배로 늘어난 것과 실종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은 의미가 다름.
MBC	뉴스데스크	○ 게다가 사고 해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이른 아침부터 40밀리미터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색작업은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2014. 4. 17.) → 게다가 사고 해역은 이른 아침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40밀리미터의 많은 비까지 내리면서 수색작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8뉴스	○ 지금 진행 중인 두 번째 시도는 승객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예상되는 3층 격실입니다. (2014. 4. 18.) → 지금 진행 중인 두 번째 시도는 승객들이 많이 있었을 걸로 예상되는 3층 격실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채널A	종합뉴스	○ 지금도 진도실내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몸도 정신도 가누지 못할 만큼 슬픔과 아픔에 잠겨 있습니다. (2014. 4. 22.) → 지금도 진도실내체육관에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몸도 마음도 가누지 못할 만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 마지막 답변을 끝으로 더 이상 교신이 끊깁니다. (2014. 4. 22.) → 마지막 답변을 끝으로 더 이상 교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 마지막 답변을 끝으로 교신이 끊깁니다.
JTBC	뉴스9	○ 하지만 오늘 안산에서는 제가 가보니까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참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2014. 4. 26.) → 하지만 오늘 안산은 제가 보기에 사람도 그렇고 도시도 표정이 참 어두웠습니다. ○ 오늘 수색 현장에서는 미국과 네덜란드, 영국 등의 구조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2014. 4. 26.) → 오늘 수색 작업은 미국과 네덜란드, 영국 등의 구조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이뤄졌습니다.
MBN	뉴스8	○ 사고 배에는 해군 수색대가 배 안에 진입해 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지만 (2014. 4. 16.) → 사고 배에 해군 수색대가 진입해 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지만 ○ 안산 단원고 교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심리적 부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4. 4. 18.) → 안산 단원고 교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심리적 부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네 수색 작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4. 4. 18.) → 네 수색 작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TV조선	뉴스1	○ 네, 지금 안산 단원고는 학부모와 교직원, 시청과 교육청 관계자 250여 명이 막 버스를 타고 진도 체육관으로 떠났습니다. (2014. 4. 16.) → 네, 지

		<p>금 안산 단원고 학부모와 교직원, 시청과 교육청 관계자 250여 명이 막 버스를 타고 진도 체육관으로 떠났습니다. / 네, 지금 안산 단원고의 관계자는 학부모와 교직원, 시청과 교육청 관계자 250여 명이 막 버스를 타고 진도 체육관으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p> <p>○ 대변인은 관계 당국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경과 해군을 비롯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2014. 4. 16.) → 대변인은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해경과 해군을 비롯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정부 당국에 요청했습니다.</p>
--	--	--

■ 조사 및 문장성분의 생략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세월호 선장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4. 4. 17.) → 세월호 선장은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 [자막] 선장의 큰소리 “승무원 따르라” (2014. 4. 17.) → [자막] 선장의 큰 소리 “승무원은 따르라.” / [자막] 선장의 큰 소리 “승무원만 따르라.”
SBS	8뉴스	○ 좌현 측 승객들이 객실에 갇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대규모 사상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14. 4. 16.) → 좌현 측 승객들이 객실에 갇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구조대가 혼신을 다하고 있지만 (2014. 4. 16.) → 구조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 배편은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2014. 4. 16.) → 이번 사고로 인해 배편은 안전하고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국민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종합뉴스	○ 이들의 아름다운 손길이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14. 4. 17.) → 이들의 아름다운 손길이 실의에 빠진 피해자 가족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해경과 여객선 회사 간에 해상크레인 사용료를 누가 내느냐를 놓고 따지느라 투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2014. 4. 20.) → 해경과 선사 간에 해상 크레인 사용료를 누가 내느냐를 놓고 따지느라 크레인 투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JTBC	뉴스9	○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같구요. (2014. 4. 19.) →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인 것 같구요.
MBN	뉴스8	○ 저도 이제 군대 때 조명탄 계속 맞아 봤습니다만 그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앞바다를 밝히는 것 같던 오징어 잡기 채낚기 어선을 동원하겠다. (2014. 4. 19.) → 저도 군에 있을 때 조명탄을 쏘며 훈련했지만 야간 활동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릉도 앞바다를 환하게 밝히던 오징어 채낚기 어선을 동원하겠다.
TV조선	뉴스1	○ 외부에서 가해진 왼쪽에 아주 큰 충격이 있었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2014. 4. 16.) → 외부에서 배의 왼쪽에 가해진 충격이 컸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 의미의 중복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하지만 <u>육지방향으로 밀려간 밀물이 빠질 때나 빠졌던 썰물이 다시 밀물로 들어올 때</u> 이 해역에서는 흐름이 유난히 느린 정조 시점이 나타납니다. (2014. 4. 16.) → 하지만 <u>밀물과 썰물이 만날 때</u> 이 해역에는 물의 흐름이 유난히 느린 정조 시점이 나타납니다.
MBC	뉴스데스크	○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u>취소되고</u> , 전남 도민체전이 <u>한 달 여 뒤로 미뤄지는 등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 연기되고</u> 있습니다. (2014. 4. 18.) →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전남 도민체전 등 각종 행사들이 <u>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u> 있습니다.
SBS	8뉴스	○ 성난 파도와 거센 물살에 <u>속수무책</u> 입니다. (2014. 4. 18.) → <u>거센 물살에 속수무책</u> 입니다.
채널A	종합뉴스	○ 하지만 많은 <u>격실과 방이</u> 있기 때문에 (2014. 4. 16.) → 하지만 많은 <u>격벽과 방이</u> 있기 때문에 ※ ‘격실’은 “따로 떨어져 있는 방이나 공간”을 뜻하는 말이므로 ‘방’과 의미가 중복됨.
JTBC	뉴스9	○ <u>이들은 아마 다 팽목항으로 옮겨 올 텐데</u> 그렇게 되면 단 1분 1초라도 <u>이분들에 대한 병원이송을 빨리</u> 하기 위해서 이곳에 응급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 4. 18.) → <u>이분들은 아마 다 팽목항으로 옮겨 올 텐데</u> 그렇게 되면 단 1분 1초라도 병원이송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응급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MBN	뉴스8	○ 대형 크레인들이 침몰 선박을 바다 밑에서 물 위로 들어 올려 준비된 <u>바지선에 올려놓는</u> 겁니다. (2014. 4. 18.) → 대형 크레인들이 침몰 선박을 바다 밑에서 물 위에 있는 <u>바지선에 들어 올려놓는</u> 겁니다.
TV조선	뉴스1	○ <u>현재 지금</u> 이 현장에 구조 작업을 펼치러 가고 있는 분을 한 분 <u>지금</u>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2014. 4. 16.) → <u>지금</u> 현장에 구조 작업을 하러 가고 있는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 구조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조 작업을 하러 가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는 것은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되므로 취재 지침에 이러한 행위를 삼가도록 명시해야 함. ○ 2013년도에 <u>인제</u> 정식으로 <u>인제</u> 우리나라에서 <u>현재 지금</u> 제주도로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정식 취항을 했는데요. (2014. 4. 16.) → 2013년도에 <u>이제</u> 정식으로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노선에 취항을 했는데요. ※ ‘이제’와 ‘인제’의 차이는 과거로부터 단절된 느낌이나(이제), 아니면 연결된 느낌이나(인제)로 구분할 수 있음.

■ 동일한 단어의 반복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일단 객실 내에 <u>진입해서 객실을</u> 격실 부분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4. 4. 21.) → 일단 객실 내에 <u>진입해서</u> <u>격실</u> 부분을 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 실종자 가족들은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2014. 4. 22.) → 실종자 가족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SBS	8뉴스	○ 민주노총은 오늘과 내일 열기로 했던 집회를 취소했고, 한국노총도 오는 25일 예정했던 집회 등 일정을 모두 미루기로 했습니다. (2014. 4. 18.)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당초 예정했던 집회를 모두 취소하거나 미루기로 했습니다.
채널A	종합뉴스	○ 가족들은 안타깝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2014. 4. 23.) → 가족들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JTBC	뉴스9	○ 브리핑 장소는 경찰청이 주최를 하지만 브리핑 장소는 지금 진도군청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2014. 4. 18.) → 경찰청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은 지금 진도군청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 이곳 선착장에서 사고지점을 바라본 채 담요를 덮어쓰고 그곳을 바라본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매일매일 같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2014. 4. 19.) → 이곳 선착장에서 사고지점을 바라본 채 담요를 덮어쓰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매일매일 같이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 3층은 일반객 승객들이 탑승했던 곳인데, 주로 저 부분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사망자가 주로 발견이 됐습니다. (2014. 4. 25.) → 3층은 일반 승객들의 탑승했던 곳인데, 주로 그곳에서 사망자가 발견됐습니다.
MBN	뉴스8	○ 조금 전 시신이 시신 한 구가 추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014. 4. 17.) → 조금 전 시신 한 구가 추가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 목포 관제센터 사이를 들린다 안 들린다 무슨 얘기냐 하면서 오갔던 그러면서 잃었던 잃어버렸던 황금 같은 시간 11분. (2014. 4. 16.) → 목포 관제센터 사이를 들린다 안 들린다 무슨 얘기냐 하면서 오갔던 그러면서 잃어버린 황금 같은 시간 11분.
		○ 구조 당시 배 안의 긴박했던 모습도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2014. 4. 17.) → 구조 당시 배 안의 모습은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TV조선	뉴스1	○ 어제 저녁에 아홉 시에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2014. 4. 16.) → 어제 저녁 아홉 시에 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 지금 속도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거 같아요. (2014. 4. 21.) → 지금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거 같아요.

■ 조사의 오용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오늘은 날씨가 좋고 하니까 시신 수습에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2014. 4. 21.) →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시신 수습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MBC	뉴스데스크	○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가 주고받았던 교신내용을 판넬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2014. 4. 20.) → 세월호와 진도관제센터가 주고받았던 교신내용을 패넬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SBS	8뉴스	○ [자막] 목포해경, 선장 이모 씨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014. 4. 17.) → [자막] 목포해경, 선장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채널A	종합뉴스	○ 세월호 침몰 7새째를 맞아 청해진 해운 등 선박 관계자에 대한 <u>수사가</u>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4. 4. 21.) → 세월호 침몰 7새째를 맞아 청해진 해운 등 선박 관계자에 대한 <u>수사에</u>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BC	뉴스9	○ 한국선급은 국회에도 전방위로 로비를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4. 4. 27.) → 한국선급은 국회에도 전방위로 로비를 한 <u>사실이</u>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8	○ 학생들이 소속된 안산 단원고등학교는 오늘 하루 초조함 속에 <u>학생들의</u>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었습니다. (2014. 4. 16.) → 학생들이 소속된 안산 단원고등학교는 오늘 하루 초조함 속에 <u>학생들이</u>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었습니다.
		○ 학생 가족들도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u>진도로 도착했는데요</u> . (2014. 4. 16.) → 학생 가족들도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u>진도로 떠났는데요</u> . / 학생 가족들도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u>진도에 도착했는데요</u> . ※ 일반적으로 ‘에’는 도착점을, ‘로’는 출발 목표점이나 방향, 경유지를 나타냄.
		○ 이어서 박통일 <u>기자의 단독 보도</u> 합니다. (2014. 4. 17.) → 이어서 박통일 <u>기자의 단독 보도</u> 입니다. / 이어서 박통일 <u>기자가 단독으로 보도</u> 합니다.
TV조선	뉴스1	○ 송 씨는 “지난 18일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며 “주위에서도 내가 실종자 직계 가족이 아닌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2014. 4. 22.) → 송 씨는 “지난 18일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며 “주위에서도 내가 실종자 직계 가족이 아닌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 부적절한 어휘의 사용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정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또 내일 새벽 1시 전후 등 썰물과 밀물의 흐름이 <u>교대되는</u> 이른바 ‘정조시간’에 유속도 함께 <u>늦춰지는</u> 만큼 이런 시간들을 이용하면 구조 작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014. 4. 16.) →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또 내일 새벽 1시 전후 등 썰물과 밀물의 흐름이 <u>교차되는</u> 이른바 ‘정조시간’에 유속도 함께 <u>느려지는</u> 만큼 이 시간을 이용하면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u>말했습니다</u> ./전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새롭게 드러내 ‘ <u>밝히는</u> ’ 것이 아닌 경우에는 ‘ <u>말하다</u> / <u>전하다</u> ’ 등을 쓰는 것이 적절함.
		○ 홀로 탈출한 이준석 선장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요구도 <u>붓물을 이루고</u> 있습니다. (2014. 4. 16.) → <u>제일 먼저</u> 탈출한 이준석 선장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요구도 <u>붓물 터지듯 쏟아지고</u>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 해경은 바닷물의 유속이 <u>늦어지는</u> ‘정조시간’에 잠수 요원을 투입해 선내 진입과 구조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2014. 4. 16.) → 해경은 유속이 <u>느려지는</u> ‘정조시간’에 잠수 요원을 투입해 선내 진입과 구조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 바닷물의 흐름이 <u>멈추는</u> 오후 6시 30분 (2014. 4. 16.) → 바닷물의 흐름이 <u>느려지는</u> 오후 6시 30분

SBS	8뉴스	○ 오늘 오후 들어서 다시 파도가 올라간 게 사실 가장 문제가 되고요. (2014. 4. 17.) ➡ 오늘 오후 들어서 다시 파도가 거세진 게 사실 가장 문제가 되고요.
		○ [자막] <u>화물차</u> 개방 후 선체 내부 진입 성공 (2014. 4. 18.) ➡ [자막] <u>화물칸</u> 개방 후 선체 내부 진입 성공
채널A	종합뉴스	○ 사진 몇 컷이 <u>저희가</u> 접수가 됐는데요. (2014. 4. 17.) ➡ 사진 몇 컷을 <u>저희가</u> 입수를 했는데요.
JTBC	뉴스9	○ 현재 선박이 <u>좌초된</u> 진도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제가 있는 이곳 팽목항까지 약 24km 떨어져 있고요. (2014. 4. 16.) ➡ 선박이 <u>침몰한</u> 진도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이곳 팽목항까지는 약 24km 떨어져 있고요. ※ ‘좌초’는 배가 암초에 부딪힌다는 뜻이므로 ‘침몰’이라는 표현을 써야 함.
		○ 조금 전 브리핑을 <u>가졌는데요</u> . (2014. 4. 16.) ➡ 조금 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MBN	뉴스8	○ 이곳 팽목항은 사고지점과 배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가장 <u>짧은</u> 항구입니다. (2014. 4. 16.) ➡ 이곳 팽목항은 사고지점과 배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가장 <u>가까운</u> 항구입니다.
		○ 일흔다섯 명으로 해경 측이 <u>확인되고</u> 있습니다. (2014. 4. 16.) ➡ <u>해경에 따르면</u> 일흔다섯 명으로 <u>확인됩니다</u> .
TV조선	뉴스1	○ 아 지금 이제 내려가시면 뭐 <u>스쿠버다이버로</u> 밑으로 배 밑으로 내려가실 예정인가 보네요? (2014. 4. 16.) ➡ 이제 <u>스쿠버다이빙 장비</u> 를 갖추고 배 밑으로 내려가실 예정인가요?
		○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려는 <u>자세도</u> 없습니다. (2014. 4. 22.) ➡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려는 <u>사람이</u> 없습니다.
		○ 진도체육관 대표 간에 긴급 통화선을 설치하고 매일 저녁 9시 정부 대책 회의에도 가족 대표가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014. 4. 21.) ➡ 진도체육관 대표 간에 긴급 통화선을 설치하고 매일 저녁 9시 정부 대책 회의에도 가족 대표가 직접 <u>참여</u>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부자연스러운 어순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사고 해역은 <u>더욱 조류를 예측하기</u> 어렵습니다. (2014. 4. 17.) ➡ 사고 해역은 조류를 예측하기 <u>더욱 어렵습니다</u> .
MBC	뉴스데스크	○ 구조팀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객실을 <u>우선 집중적으로</u> 수색했습니다. (2014. 4. 17.) ➡ 구조팀은 <u>우선</u>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층 객실을 <u>집중적으로</u> 수색했습니다.
SBS	8뉴스	○ <u>거꾸로</u> 지금 돼 있습니다. (2014. 4. 17.) ➡ <u>지금 거꾸로</u> 돼 있습니다.
채널A	종합뉴스	○ 지금 그걸 <u>가지고 다</u> 들어가시는 건가요? (2014. 4. 18.) ➡ 지금 그걸 <u>다 가지고</u> 들어가시는 건가요?
		○ [자막] <u>해경, 추가 여성 사망자 시신 발견</u> (2014. 4. 19.) ➡ [자막] <u>해경, 여성 사망자 시신 추가 발견</u>

JTBC	뉴스9	○ 도시도 <u>참 표정이 어두웠습니다.</u> (2014. 4. 26.) → 도시도 <u>표정이 참 어두웠습니다.</u>
MBN	뉴스8	○ 기적이 <u>간절히 일어나길</u> 바랍니다. (2014. 4. 16.) → 기적이 일어나길 <u>간절히</u> 바랍니다.
TV조선	뉴스1	○ 더 이상 인명 피해 없기를 <u>간절히 저희도</u>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4. 4. 16.) → 더 이상 인명 피해 없기를 <u>저희도 간절히</u> 기도하고 있습니다.

■ 정리가 안 된 말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TV조선	뉴스1	○ <u>그 과다 어떤 이런 것들이 실려 있거나</u> (2014. 4. 16.) → <u>확물이 과다하게 실려 있거나</u>
		○ <u>저 안에 지금 구멍이 하나 보이고 안에서 어떤 물..인가요?</u> (2014. 4. 16.) → <u>저곳에 구멍이 하나 보이는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물인가요?</u>
		○ <u>구조하는 데 혹은 또 이 파도 이런 데들은 어때요?</u> (2014. 4. 16.) → <u>구조하는 데 날씨는 어떤가요, 파도의 높이는 높지 않나요?</u>
		○ <u>선박끼리의 충격이었다면 그 같은 충돌했던 다른 선박이 소식이 들리..들려야 할 텐데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u> (2014. 4. 16.) → <u>선박끼리 충돌한 것이라면 그때 충돌했던 다른 선박 소식이 들려야 할 텐데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u>

2) 정확성

(03) 근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은 표현

- 탑승객 숫자의 경우 <TV조선 뉴스1>은 처음에 “모두 400여 명”이라고 대략적인 숫자를 보도한 다음, 이후 선사의 통계를 인용하여 탑승객이 모두 477명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KBS 뉴스9>와 <채널A 종합뉴스>는 462명,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하여 <SBS 8시 뉴스타임>, <MBN 뉴스8>, <JTBC 뉴스9> 등은 459명이 탑승했다고 처음부터 구체적인 숫자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탑승객수를 어떻게 집계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서 생긴 일로 현재까지 알려진 세월호 탑승 인원은 476명으로 정확한 탑승 인원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초기에 이를 제대로 확인한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다만 <TV조선 뉴스1>만 처음에는 대략적인 숫자를 내보냈고, 이후 선사의 통계를 인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 또한 단원고 희생자 숫자도 <TV조선 뉴스1>은 최종적으로 “학교 측은 남학생 171명, 여학생 153명과 인솔교사 14명까지 총 338명이 탔던 것으로 밝혔습니다.”라고 학교

를 출처로 밝히고 있다. 반면에 <KBS 뉴스9>는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MBC 뉴스데스크>는 ‘학생 325명과 교사 10여 명(이후 15명)’, <SBS 8뉴스>는 ‘학생과 교사 340명(이후 단원고 학생 325명만 언급)’, <채널A 종합뉴스>는 ‘학생 325명과 교사 15명’, <JTBC 뉴스9>는 ‘학생 325명’, <MBN 뉴스8>은 ‘단원고 320여 명’을 뚜렷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에는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 일반인 104명, 선원 33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보의 출처를 밝히는 방식과 관련하여 앵커에 의한 소개 단계에서 밝힐 수도 있고, 기자(혹은 리포터)에 의한 보도 단계에서 밝힐 수도 있다. 즉, 앵커에 의한 소개와 기자(혹은 리포터)에 의한 보도로 구조화된 뉴스 보도 연속체 중에 어느 지점에서든지 한 번만 밝히면 된다. 모든 문장에 출처를 밝힐 필요는 없다. 자막의 경우는 맨 앞에 쉼표로 구분하여 출처를 밝히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한편 “배를 건져 올려 어느 부분에 파공이 생겼는지를 살펴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처럼 정보의 출처를 ‘전문가’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밝히는 것은 정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근거를 밝히지 않거나 근거한 부족한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채널A	종합뉴스	○ 갑자기 위험물체를 발견했거나 엔진 등 설비가 고장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2014. 4. 18.) ※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변칙한 원인을 두 가지로만 좁혀서 말하고 있음.
MBN	뉴스8	○ 녹장 도착 지적이 나오자, 해양경찰청은 사건 발생과 동시에 크레인 출발을 요청했고, 예인선과 연료 준비 등 최소한의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크레인 사용료 전가' 논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초가 하루같이 느껴지는 초조한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구조를 준비하는 시간도 지연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 생긴 <u>오해</u> 로 보입니다. (2014. 4. 18.) ※ 해경의 녹장 대응 논란과 관련하여 ‘오해’라고 논평하면서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해경의 해명이 전부임.
TV조선	뉴스1	○ 가족들이 직접 만난 구조대원은 배 안에 생존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4. 4. 17.) ※ 배 안에 생존자가 있다는 말의 근거가 불확실함.

■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출처를 짐작할 수 없는 표현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구조요원들이 선실 3곳에 가까스로 진입했지만, 이미 물이 들어차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4. 4. 16.) ※ 앵커의 말에서는 출처를 찾을 수 없음. 다만, 리포터가 해군과 해경이 새벽 1시에 집중 수색을 벌이기로 했다는 말을 전하는데, ‘해군과 해경’을 출처

		로 보기 어려움.
MBC	뉴스데스크	○ 침몰선이 암초에 부딪힌 흔적이 별로 없어 배 뒤편에 있는 에어 탱크 등이 폭발해 배가 파손돼 대량 침수가 발생한 게 침몰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14. 4. 16.) ※ 세월호를 개조했다는 사실은 ‘전직 세월호 기관사’의 말을 인용했다고 출처를 밝혔지만 에어 탱크 폭발설은 출처를 밝히지 않음.
SBS	8뉴스	○ 그래도 구조대원들은 어제처럼 밤에도 계속 조명탄을 쏘가면서 조금이라도 날씨가 좋아지면 어떻게든 한 번 구조작업을 재개해보겠다는 방침인데, 어떻게 될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14. 4. 16.) ※ 구조대원들의 구조 재개 방침을 어디에서 전해 들었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음.
채널A	종합뉴스	○ 선박 노후화가 침몰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4. 4. 18.) ※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음.
JTBC	뉴스9	○ 일본에서 사들인 중고 선박이긴 했지만 두 달 전에 실시한 안전검사에선 <u>별반 이상이 없었다고</u> 합니다. (2014. 4. 16.) ※ 이 말의 출처를 밝히지 않음.
MBN	뉴스8	○ 갑작스럽게 뱃머리를 돌릴 때 부실하게 묶인 컨테이너와 화물들이 무게중심을 흐트려 순식간에 균형을 잃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14. 4. 17.) ※ 이러한 분석을 누가 했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음.
TV조선	뉴스1	○ 어제 저녁부터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u>오늘 오전 10시쯤에는 선실 내부 식당 칸까지 들어가는 진입 통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u> (2014. 4. 17.) ※ 이 말의 출처를 밝히지 않음.

(04) 추측에 근거한 표현

- 국제언론인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의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에서는 사고 초기 단계에 추측성 보도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유승관, 2014:23). 방송기자연합회 저널리즘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방송보도를 통해 본 저널리즘의 7가지 문제>에서도 ‘사실 확인의 원칙’ 준수를 요구한다. 즉, 단편적인 사실에 기대어 성급하게 추측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심석태 외, 2014:64). 그것이 아무리 전문가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내용은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
- 아울러 “현장에 있는 잠수요원들의 속도 함께 타 들어가고 있습니다.”처럼 인터뷰에 근거하지 않은, 전지적 관점의 표현을 남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자(혹은 리포터)의 주관적인 해석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 추측에 근거한 표현에 주로 사용하는 서술어 중에 “추정되다, 예상되다, 제기되다”나

“지적이다, 분석적이다”, “보이다” 등의 피동형 서술어는 행동 주체를 밝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기자(혹은 리포터)의 주관적인 해석을 감추는 전략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송용희, 2007:242).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상황이 심상치 않아 일부 승객들이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전까지 발생해 대피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면서 기관실에 물이 차 엔진이 멈춰 섰고 이에 따라 전기 공급도 끊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가 기울면서 받은 압력 때문에 객실 문이 잘 열리지 않았을 개연성도 큼니다. 힘들게 문을 열고 나온다 해도 크게 기울어진 복도를 걷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4. 4. 16.)
MBC	뉴스데스크	○ 이의 절반 규모인 세월호를 인양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u>예상되고</u> 있습니다. (2014. 4. 20.)
SBS	8뉴스	○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로 바다에 먼저 침몰한 좌현 측에 실종자가 많이 몰렸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2014. 4. 16.)
채널A	종합뉴스	○ 여기에 유속이 빠른 맹골수도 지역에서 세월호는 평소보다 빠른 최고속도인 시속 39km로 과속 운항했고 방향 전환 시 더 급격하게 중심을 잃은 것으로 <u>보입니다</u> . (2014. 4. 22.)
JTBC	뉴스9	○ 유씨 일가가 환경단체를 앞세워 대규모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을 <u>가능성도</u>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4. 4. 22.)
MBN	뉴스8	○ 선측 왼쪽에 구멍이 뚫리며 물이 들어와 한쪽으로 무게가 쏠렸다는 <u>분석</u> 입니다. (2014. 4. 16.)
		○ 이른바 '수밀문'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u>지적</u> 입니다. (2014. 4. 16.)
TV조선	뉴스1	○ 학생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4층 선미 객실입니다. (2014. 4. 22.)

(05) 과장된 표현

- 일본 NHK는 ‘크다, 심하다, 매섭다’ 등의 형용사와 ‘통곡, 초토화, 암흑천지’ 등의 명사를 자극적인 표현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7개 방송사가 세월호 보도에서 어떤 형용사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201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세월호 보도와 관련하여 형용사 ‘크다’를 가장 많이 사용한 방송사는 KBS1 뉴스9이며, 그 뒤를 이어 SBS 뉴스타임, TV조선 뉴스1, MBN 뉴스8, JTBC 뉴스9, MBC 뉴스데스크, 채널A 순으로 나타났다.
- 재난방송에서 상황을 과장할 목적으로 ‘극(極)’, ‘급(急)’, ‘대(大)’, ‘초(超)’, ‘폭(暴)’ 등의 접두사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임태섭, 1999:24). 이외에도 ‘총(總)’, ‘최(最)’ 등의 접두사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 이름	고빈도 형용사 목록	
지상파	KBS1	뉴스 9	크다(16회), 없다(15회), 빠르다(11회), 쉽다(5회), 많다(5회), 어렵다(4회), 질다(4회), 차다(4회)
	MBC	뉴스데스크	없다(16회), 많다(13회), 가능하다(9회), 빠르다(9회), 크다(8회), 차갑다(5회), 안타깝다(5회), 높다(5회)
	SBS	뉴스타임	없다(16회), 크다(15회), 빠르다(14회), 아니다(11회), 많다(8회), 무겁다(5회), 어렵다(5회), 같다(5회)
종합편성	채널A	종합뉴스	그렇다(44회), 아니다(11회), 많다(11회), 없다(9회), 같다(9회), 다르다(6회), 안타깝다(6회), 크다(5회)
	MBN	뉴스 8	없다(13회), 크다(11회), 빠르다(10회), 많다(6회), 같다(6회), 아니다(5회), 초조하다(5회), 작다(4회)
	JTBC	뉴스 9	없다(20회), 아니다(15회), 그렇다(13회), 같다(13회), 어렵다(10회), 크다(8회), 많다(8회), 안타깝다(8회)
	TV조선	뉴스 1	그렇다(51회), 아니다(29회), 없다(26회), 같다(22회), 크다(12회), 많다(9회), 늦다(6회), 엄청나다(6회)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총력전에 들어간 실종자 수색작업, 오늘 밤과 내일이 가장 큰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2014. 4. 20.) ➔ 실종자 수색작업, 오늘 밤과 내일이 가장 큰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 사고 해역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구조선들이 모여 치열한 수색,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2014. 4. 20.) ➔ 사고 해역에서는 ○적의 구조선들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펼쳤습니다.
SBS	8뉴스	○ 배편은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사고로 인한 충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2014. 4. 16.) ➔ 배편은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던 국민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종합뉴스	○ [자막] 시신 운구되자 가족들 눈물바다 (2014. 4. 20.) ➔ 생략
JTBC	뉴스9	○ 세월호의 참극이 비전문적이고 폐쇄적인 경영방식에서 빚어졌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4. 4. 21.) ➔ 세월호 참사는 선사의 비전문적이고 폐쇄적인 경영방식에서 빚어졌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8	○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필사의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 4. 16.) ➔ 실종자들을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뉴스1	○ 외부에서 가해진 왼쪽에 아주 큰 충격이 있었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2014. 4. 16.) ➔ 배의 왼쪽에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을 거라는 말씀이신데

(06) 추상적 표현

- 재난보도에서 ‘구조 상황’을 언급할 때는 포괄적이거나 개략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구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예컨대 ‘정부는’, ‘군 당국은’, ‘전문가들은’이라는 말은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해군’, ‘해경’처럼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세월호 보도에서 지적된 문제점으로 구조 활동에 투입된 구조 인력과 관련하여 ‘육해공 총동원’, ‘가용 인원과 장비 모두 투입’ 등의 두루뭉술한 표현의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해군 해난구조대와 해경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u>구조요원들은 우선 선실 3곳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지만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u> 현재 사고 해역에는 해군 해난구조대와 특수전단 요원 등 170여 명과 육군 특전사 요원 150명 등이 급파돼 있습니다. (2014. 4. 16.) ※ 선실에 진입한 구조요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없도록 표현되어 있음, 사고 해역에 300여 명 이상의 구조요원이 급파되어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선실에 진입한 구조요원이 많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음.
		○ 사고 직후, <u>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u> (2014. 4. 16.) ※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모두’ 투입했다는 식의 보도는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추가 지원을 막는 표현임, 재난보도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함.
		○ 투입된 경비함정만 81척, 헬기 15대가 동원됐고, 200명에 가까운 구조인력이 <u>배 안팎에서</u> 구조작업을 벌였습니다. (2014. 4. 16.) ※ 배 안에서 구조작업을 벌인 구조인력이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도록 표현되어 있음, 경비함 81척, 헬기 15대, 구조인력 200여 명을 투입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선실에 구조작업을 벌인 구조요인이 많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 있음.
		○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u>긴박한 사투</u> 가 벌어졌습니다. (2014. 4. 16.) ※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긴박한 사투’라는 표현보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표현임.
MBC	뉴스데스크	○ 해경은 해가 진 뒤에는 <u>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u> 조명탄을 투하하면서 <u>소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u> (2014. 4. 16.)
		○ 배가 뒤집히기 시작한 오전 11시쯤, 공군과 육군 전력까지 도착하면서 <u>입체 작전</u> 이 벌어졌습니다. (2014. 4. 16.) ※ 입체 작전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이지 않음.
		○ <u>서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상륙강습함정 '본험 리처드함'</u> 도 잠시 뒤 9시를 전후해 사고 해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014. 4. 16.) ※ 리처드함이 도착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음.
SBS	8뉴스	○ 특히 선체 안에 남아 있을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해군과 해경의 <u>잠수부 200명 이상이 투입</u> 했습니다. (2014. 4. 16.) ※ 실제로 잠수사 200명 이상이 모두 선내로 들어갔는지 명확하지 않음.
채널A	종합뉴스	○ <u>170여 명이 구조되는 데 결정적</u> 역할을 한 이 학생은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4. 4. 22.)
JTBC	뉴스9	○ 그리고 선장은 본인이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2014. 4. 18.)
MBN	뉴스8	○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잠수사 500여 명이 <u>총동원돼 강도 높은 잠수</u> 가 이어졌습니다. (2014. 4. 21.)
TV조선	뉴스1	○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 477명이 탄 여객선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여객선 2시간 정도 만에 완전 침몰해 있는 상황입니다. 승객 상당 부분 구조가 된 상황이지만은 사망자 두 명이나 나온 상황입니다.

	(2014. 4. 16.)
	○ 세월호 침몰 현장에는 UDT와 SSU 등 해군 잠수요원 30여 명이 새벽 6시부터 선체와 인근 해역에 투입되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4. 4. 17.)

3) 품격성

(07) 자극적 표현

-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사고 및 피해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혹은 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시청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눈물샘을 자극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볼 수 있다. 실례로 단원고 학생들의 사적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경쟁적으로 보도한 행위는 재난방송의 본질과 관계없이 시청률을 의식한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 상황의 구체적인 묘사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미끄러진 자판기와 옷장, 짐들이 승객들과 뒤엉키기도 했습니다. (2014. 4. 16.) ※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재난보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자극적인 표현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바닥에 단단히 고정해두지 않은 음료 자판기 같은 짐기가 선실에 있던 승객들을 덮쳤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찼던 여행 가방도 튕기로 돌변했습니다. (2014. 4. 16.) ※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재난보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자극적인 표현이므로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MBC	뉴스데스크	○ 생존자 명단에 자녀 이름이 없는 학부모는 오열하기 시작했고, 한 여성은 자식을 살려내라며 항의하다 실신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2014. 4. 16.)
SBS	8뉴스	○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2014. 4. 16.) ※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재난보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음.
채널A	종합뉴스	○ 네 근데 사고가 난지 30분 쯤 뒤입니다. “언니가 말이야 기념품 못 사올 것 같아 미안해.”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2014. 4. 16.)
JTBC	뉴스9	○ 공무원들에게 아직 생사여부도 모르느냐며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경우도 많이 보였습니다. (2014. 4. 16.)
		○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더디기만 한 구조 작업에 역장이 무너집니다. (2014. 4. 17.)

MBN	뉴스8	○ 날이 지날수록 수색 작업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타들어만 갑니다. (2014. 4. 29.)
TV조선	뉴스1	○ 7~8층 정도로 추정되는 그런 높이인데 여기서 뛰어내리게 되면 이 바다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부상도 입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듭니다. (2014. 4. 16.)

■ 상황의 극적인 묘사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머리가 흠뻑 젖은 여고생들. 충격 속에 친구들의 이름을 다급하게 외칩니다. (2014. 4. 16.) ※ 피해 상황에 대한 극적인 묘사는 재난보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음.
MBC	뉴스데스크	○ 구조해달라, 사랑한다는 인사도 보내지 못한 채, 지금까지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있습니다. (2014. 4. 16.) ○ 웃으며 떠났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모습에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2014. 4. 17.)
SBS	8뉴스	○ 여자 어린이 1명이 이동 침대에 누워 병원으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닥친 사고와 낯선 환경에 놀란 듯 긴장한 얼굴입니다. (2014. 4. 16.)
채널A	종합뉴스	○ 제자들을 구하다가 정작 본인은 숨진 채 발견된 고 남윤철 교사. (2014. 4. 20.) ○ [자막] 세월호 침몰 소식 후 구조 작업 위해 이동 중에 참변 (2014. 4. 17.)
JTBC	뉴스9	○ 오전 9시 20분 선체가 흔들리고, 모두가 혼란스러운 순간에서도 이들은 "사랑한다", "살아서 만나자"며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2014. 4. 16.) ※ 피해 상황에 대한 극적인 묘사는 재난보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음. ○ 책상에 붙인 '공부 열심히 하기'라는 올해 목표는 끝내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됐습니다. (2014. 4. 16.) ○ 물이 들어차는 세월호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기도해달라, 무서우니 빨리 데리러 오라고 간절하게 말했던 여고생이 끝내 하늘로 떠났습니다. (2014. 4. 25.)
MBN	뉴스8	○ 일부 학생은 구조자 명단을 보며 친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명단에 없으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2014. 4. 16.) ※ 피해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오열하는 장면의 묘사는 재난보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음.
TV조선	뉴스1	○ 안치를 마친 유족들은 자식을 떠나 보내야하는 슬픔에 다시 한 번 오열했습니다. (2014. 4. 29.) ○ 오전엔 한 다문화 학생의 어머니가 교무실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는데 진도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며 안내해 줄 선생님을 서툰 한국어로 찾았습니다. (2014. 4. 17.)

■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자막] <u>다운이의 마지막 등교…그리고 이별</u> (2014. 4. 22.)
MBC	뉴스데스크	○ <u>구조를 기다리던 어린 학생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순간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습니다.</u> (2014. 4. 16.)
SBS	8뉴스	○ <u>실종자들은 배 안에 갇혔을 가능성이 큰데, 선실 위치가 어디였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릴 수 있습니다.</u> (2014. 4. 16.)
채널A	종합뉴스	○ [자막] Q. <u>침몰 순간 문자 메시지 내용은?</u> (2014. 4. 16.)
		○ <u>온 국민을 울리고 있는 다섯 살 권지연 양도 다문화 가정 출신인데요.</u> (2014. 4. 18.)
		○ <u>세월호의 인양 작업이 세계 해난 역사상 가장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는 외신의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u> (2014. 4. 21.)
JTBC	뉴스9	○ <u>이 배는 인명피해 등 배상책임에 대해 1인당 3억 5천만 원 한도로 해운 공제회에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u> (2014. 4. 16.)
MBN	뉴스8	○ <u>온라인상에 무차별적으로 퍼지는 ‘여객선 괴담’이 또 한 번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u> (2014. 4. 17.)
TV조선	뉴스1	○ <u>저게 이 구명조끼가 그 배가 강철로 되어 있는데 추락하고 구조할 때 탈출할 때 떨어지거나 하면 몸을 전혀 보호해줄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u> (2014. 4. 17.)

(08) 저속한 표현

-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저속한 표현(비속어나 은어, 유행어 등)의 사용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특히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1분에 1번 이상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달리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 다만 사전 준비가 충분치 않은 경우,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자막] <u>뒹돈 얼룩진 저질 수학여행</u> (2014. 4. 28.)
MBC	뉴스데스크	○ 이른바 ' <u>머구리</u> ' 잠수사들도 오늘부터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2014. 4. 21.) ※ ' <u>머구리</u> '는 ' <u>보자기</u> '(바닷속에 들어가서 조개나 미역 따위의 해산물을 따는 일을 하는 사람)의 방언임.
		○ [자막] <u>가족 등쳐먹는 파렴치 사기꾼들</u> (2014. 4. 21.)
채널A	종합뉴스	○ <u>그렇다면 고등학생들 2학년짜리들이 많다고 하면</u> (2014. 4. 16.) → <u>그렇다면 고등학생들 2학년 학생들이 많다고 하면</u>
		○ <u>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직구로 호소하고 통화까지 한</u> (2014. 4. 18.)

		○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은 속칭 <u>바지 사장</u> 이 아닌 (2014. 4. 18.)
JTBC	뉴스9	○ 직원 평균 연봉이 1억 원, 회장은 2억 원대여서 <u>신의 직장</u> 으로도 불립니다. (2014. 4. 26.)
MBN	뉴스8	○ 입을 닫고 <u>줄행랑치기</u> 바쁜 청해진해운의 오늘입니다. (2014. 4. 17.) → 입을 닫고 <u>도망치기</u> 바쁜 청해진해운의 오늘입니다. ※ '줄행랑'은 '도망'의 속어임.
TV조선	뉴스1	○ <자막> 검찰, SNS '살아있다' 카톡 캡처 화면 수사 (2014. 4. 20.) ※ '카카오톡'의 줄임말 '카톡'은 은어임.

4) 공정성

(09) 감정적 표현

- 일본 아사히신문의 시사 평론가 고바야시 긴코는 모름지기 방송 뉴스란 불편부당성과 정확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고 말한다(헤럴드경제, 2014. 10. 10.).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뉴스 진행자들 중에 일부 스타급 앵커들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한 편이다. 이러한 뉴스 진행 방식에 일부는 호감을 표시하지만, 또 일부는 반감을 표시한다. 따라서 재난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뉴스 진행자의 감정적 표현 남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이렇게 밤이 깊어가고 구조 작업도 <u>늦어지면서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u> (2014. 4. 16.) → 이렇게 밤이 깊어가는데 구조 작업은 <u>늦어지고 있습니다.</u>
MBC	뉴스데스크	○ <u>안타까운 구조요청</u> 은 이후로도 30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2014. 4. 16.) → <u>구조요청</u> 은 이후로도 30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SBS	8뉴스	○ 구조가 확인된 학생은 78명에 불과해 학생들의 추가 <u>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u> (2014. 4. 16.) → 구조가 확인된 학생은 78명에 불과해 학생들의 추가 <u>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u>
채널A	종합뉴스	○ <u>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고</u> 가 일어났습니다. → <u>대형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u> 가 일어났습니다.
JTBC	뉴스9	○ 망연자실하게 가족의 <u>이름을 찾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u> (2014. 4. 16.) → 망연자실하게 가족의 <u>이름을 찾고 있습니다.</u> ○ 오늘 <u>차마 믿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상황</u> 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4. 4. 16.) → 오늘 <u>대형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u> 가 일어났습니다.
MBN	뉴스8	○ 오후 8시가 지나면서 이 시각 바다는 <u>야속하게도 끔찍한 상황</u> 입니다. (2014. 4. 16.) → 오후 8시가 지나면서 이 시각 바다는 <u>끔찍한 상황</u> 입니다.

TV조선	뉴스1	○ 현재 진도 앞바다는 파도 높이가 0.5m 그리고 시정이 20km로 구조에 <u>다행히 큰 무리가 없다</u> 고 합니다. (2014. 4. 16.) ➡ 현재 진도 앞바다는 파도 높이가 0.5m 그리고 시정이 20km로 구조에 <u>큰 무리가 없다</u> 고 합니다.
------	-----	--

(10) 차별적 표현

- 2012년 이지연 아나운서가 자신을 가리켜 ‘한자 장애인’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뉴스 진행자의 ‘장애인’ 비하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기자협회는 ‘언론인을 위한 인권보도준칙(2011)’ 제3장 ‘장애인 인권’ 항목에 장애인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사고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단원고 학생에 관한 뉴스가 교사와 일반인에 관한 뉴스보다 많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잠수부’와 ‘잠수사’ 논쟁도 마찬가지다.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2인 1조로 투입되는 <u>잠수부</u> 들은 이 탐색 줄을 따라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14. 4. 17.) ➡ <u>잠수사</u> 들은 2인 1조로 이 탐색 줄을 따라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MBC	뉴스데스크	○ 노련한 <u>잠수부</u> 들이 10여 차례 투입됐지만 공기 주입과 선체 내부 수색에 실패했습니다. (2014. 4. 17.) ➡ 노련한 <u>잠수사</u> 들이 10여 차례 투입됐지만 공기 주입과 선체 내부 수색에 실패했습니다.
SBS	8뉴스	○ 특히 선체 안에 남아 있을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해군과 해경의 <u>잠수부</u> 200명 이상이 투입했습니다. (2014. 4. 16.) ➡ 특히 선체에 있을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해군과 해경의 <u>잠수 요원</u> 200명 이상이 투입했습니다.
채널A	종합뉴스	○ <u>잠수부</u> 들이 배 근처에 접근조차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2014. 4. 17.) ➡ <u>잠수사</u> 들이 배 근처에 접근조차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JTBC	뉴스9	○ <u>잠수부</u> 도 178명이나 동원이 된 상황입니다. (2014. 4. 16.) ➡ <u>잠수사</u> 도 178명이나 동원이 된 상황입니다.
MBN	뉴스8	○ 사고 직후 해경은 1차로 <u>잠수부</u> 20명을 투입해 (2014. 4. 16.) ➡ 사고 직후 해경은 1차로 <u>잠수사</u> 20명을 투입해
TV조선	뉴스1	○ 탑승자 가족들은 별도의 민간 <u>잠수부</u> 를 불러 구조에 나설 계획입니다. (2014. 4. 17.) ➡ 탑승자 가족들은 별도의 민간 <u>잠수사</u> 를 불러 구조에 나설 계획입니다.

(11) 편파적 표현

- 편파적 표현이란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가리키는 말로 이주행·류춘열(2004)의 풍자성 표현(조롱 표현)과 동일한 개념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보

고서에서는 편파적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주창윤 외(2013)를 따르기로 한다. 편파적 표현에는 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많다.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재난본부와 해경 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4. 4. 1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경은 탑승자와 구조자 숫자에 오류가 있는 것과 관련하여 상대 기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책임을 떠넘긴다’는 말은 두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탑승자와 실종자, 구조자 숫자를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방법임. 아울러 그래야만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음.
		○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모습에 혼란만 가중됐습니다. (2014. 4. 1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종자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 ‘정부가 우왕좌왕하며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표현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정부가 왜 탑승자와 실종자, 구조자 숫자를 정확히 집계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편이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방법임.
MBC	뉴스데스크	○ 오락가락한 탑승인원은 결국 사고발생 14시간 만에 CCTV로 일일이 배에 탄 사람 수를 셴 뒤에야 집계됐습니다. (2014. 4. 17.) → 정확한 탑승 인원의 집계는 사고발생 14시간 만에 CCTV로 일일이 배에 탄 사람 수를 셴 뒤에야 나왔습니다.
SBS	8뉴스	○ 교육청이 사실을 잘못 파악해 생긴 촌극이었습니다. (2014. 4. 16.) → 교육청이 사실을 잘못 파악해 생긴 일이었습니다.
채널A	종합뉴스	○ 구조된 사람, 심지어 탑승자의 숫자까지도 아침부터 정말 오락가락 갈팡질팡 했습니다. (2014. 4. 16.) → 구조자는 물론이고 탑승자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뉴스9	○ 사고 가족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당국이 구조는 커녕 구조자 숫자도 제대로 파악 못하면서 가족들을 두 번 울렸습니다. (2014. 4. 16.)
MBN	뉴스8	○ 대형 참사만 나오면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의 안전도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2014. 4. 16.) →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뉴스1	○ [자막] 대형 참사 앞 우왕좌왕… “또 인재였다” (2014. 4. 16.) → [자막] 대형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또 인재였다”

5) 용이성

(12)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쉬운 공공언어 사용하기’의 방향은 국민의 알 권리

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공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원칙은 방송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가능한 한 ‘쉬운 방송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용어를 사용할 경우, 전문용어의 앞이나 뒤에 일종의 주석처럼 뜻을 풀어주면 좋다. 예컨대 ‘정조 시간’이라는 말 앞에 “물 흐름이 다소 잔잔해지는”(JTBC 9시 뉴스, 2014. 4. 16.)”이라는 설명을 붙여주고, ‘사리 기간’ 앞에 “물살이 빨라지는”(MBC 뉴스데스크, 2014. 4. 16)이라는 설명을 붙여 주는 식이다.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대형 여객선은 선실이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차폐문으로 격리된 구조로 되어 있어 일부 선실에는 공기가 남아 있을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 <u>에어 포켓</u> ’입니다. (2014. 4. 16.) ➡ 대형 여객선은 선실이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차폐문으로 격리되어 있어 일부 선실에는 공기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른바 ‘ <u>선내 공기층</u> ’이 생기는 것입니다.
		○ 잠수부들은 3층 <u>레크리에이션</u> 룸에 바지선의 공기 주입기와 연결된 지름 19mm 짜리 호스를 밀어 넣었습니다. (2014. 4. 18.) ➡ 잠수부들은 3층 <u>선원 휴게실</u> 에 바지선의 공기 주입기와 연결된 지름 19mm짜리 호스를 밀어 넣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 세월호가 146미터 길이에 높이가 24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u>함수</u> 는 수면 위로 나오고 <u>함미</u> 는 바닥에 비스듬히 닿아 이 같은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 4. 16.) ➡ 세월호가 146미터 길이에 높이가 24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u>뱃머리</u> 는 수면 위로 나오고 <u>배꼬리</u> 는 바닥에 비스듬히 닿아 이 같은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자막] ‘ <u>세월호는 리프트 백으로 부양 안 돼</u> ’ (2014. 4. 18.) ➡ [자막] ‘ <u>세월호는 공기 주머니로 부양 안 돼</u> ’
SBS	8뉴스	○ 해운법상 여객선 <u>선령</u> 기본 기준으로 돼 있는 선령 20년 이하의 배 중 가장 낡은 배인 셈입니다. (2014. 4. 16.) ➡ 해운법상 여객선 <u>선박제조연식</u> 을 기준으로 <u>선박제조연식</u> 이 20년 이하의 배 중 가장 낡은 배인 셈입니다.
채널A	종합뉴스	○ 그런데 오히려 <u>평형수</u> 를 줄이고 대신 화물을 더 실어 복원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2014. 4. 22.) ➡ 그런데 오히려 <u>선박의 무게 중심</u> 을 맞추는 <u>평형수</u> 를 줄이고 대신 화물을 더 실어 복원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JTBC	뉴스9	○ 한국선급 사이트에 적힌 세월호의 전체 중량은 6,825톤입니다. 배 자체의 무게와 화물, 승객, 연료 등의 무게를 모두 더한 수치입니다. 이를 <u>만재배수</u> 톤수라고 합니다. (2014. 4. 19.) ➡ 한국선급 사이트에 적힌 세월호의 전체 중량은 6,825톤입니다. 배 자체의 무게와 화물, 승객, 연료 등의 무게를 모두 더한 수치입니다. 이를 <u>배수량</u> 톤수라고 합니다.
MBN	뉴스8	○ 이른바 ‘ <u>수밀문</u> ’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2014. 4. 16.) ➡ ‘ <u>배</u> 에 물을 가두어두는 <u>수밀문</u> ’이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 <u>플로팅 도크</u> ’를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다고 하는데 (2014. 4. 18.) ➡ ‘ <u>플로팅 도크</u> ’, 즉 해상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바지선 형태의 대형 구조

		물을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다고 하는데 ※ 실제로 MBN 뉴스8에서는 플로팅 도크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했다. (예) 바다 위의 조선소로 불리는 ‘플로팅 도크’
TV조선	뉴스1	○ 천주교 주교회의에 전달한 메시지에서 "유가족들과 아직 행방불명인 이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14. 4. 18.) → 천주교 주교회의에 전달한 교서에서 "유가족들과 아직 행방불명인 이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3)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 방송에서 ‘아기’를 ‘유아’로, ‘옷’을 ‘의복’으로, ‘집’을 ‘가옥’으로, ‘싸우다’를 ‘투쟁하다’로 바꾸어 쓰는 일이 많다. 그런가 하면 ‘유아’를 ‘베이비’로, ‘의복’을 ‘드레스’로, ‘가옥’을 ‘하우스’로, ‘투쟁하다’를 ‘배틀’로 바꾸어 쓰기도 한다. 이는 ‘고유어<한자어<외래어’ 순으로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일종의 언어사대주의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듯 새말을 만들 때, ‘적(的)’, ‘성(性)’, ‘화(化)’ 등의 접미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윤재홍, 2005:112). 이와 관련하여 우리말에서 모든 한자어와 외래어를 몰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쉬운 방송언어 사용하기의 일환으로 순화된 표현이나 쉬운 표현을 사용하자는 것이다.

■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사용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한스럽다. (2014. 4. 29.) → 오랫동안 쌓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한스럽다.
MBC	뉴스데스크	○ 고군분투 끝에 오늘 하루 시신 한 구를 더 찾아냈습니다. → 애써 노력한 덕에 오늘 하루 시신 한 구를 더 찾아냈습니다.
SBS	8뉴스	○ 이게 정체모를 전언이었습니다. (2014. 4. 16.) → 이것이 정체 모를 소식이었습니다.
채널A	종합뉴스	○ 신호가 왜 끊겼는지가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핵심적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 4. 16.) → 신호가 왜 끊겼는지가 사고 원인을 밝혀내는 핵심적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9	○ 말 그대로 창졸지간이었다고 봐야겠군요. (2014. 4. 16.) →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고 봐야겠군요.
MBN	뉴스8	○ [자막] '선주협회 외유' 정치권 불똥. → [자막] '선주협회 해외여행' 정치권 불똥
TV조선	뉴스1	○ 진도 부근의 해상은 흐렸지만 시정은 20km 수준으로 여객선 운항에 크게 나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 진도 부근의 해상은 흐렸지만 시야는 20km 수준으로 여객선 운항에 크게 나쁘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 일본식 한자어 사용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특히 어선은 크기가 큰 군함이나 해경선보다 빠르고 민첩하게 사고 해역에 접근할 수 있어, 초기 구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 특히 어선은 크기가 큰 군함이나 해경선보다 빠르고 민첩하게 사고 해역에 접근할 수 있어, 초기 구조에 큰 <u>구실</u> 을 했습니다.
MBN	뉴스8	○ 세월호 무게가 무려 6천800톤에 달하고, 수심이 37미터라는 점을 <u>감안</u> 하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2014. 4. 16.) ➔ 세월호 무게가 무려 6천800톤에 달하고, 수심이 37미터라는 점을 <u>고려</u> 하면,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참고] 이 자료는 국립국어원이 발행한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2005)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 순화어가 있는 한자어 사용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해경 헬기와 100톤급 경비정 등을 시작으로 해군과 <u>유관기관</u> 의 구조선들이 동원돼 인명 구조작업이 시작됩니다. (2014. 4. 16.) ➔ 해경 헬기와 100톤급 경비정 등을 시작으로 해군과 <u>관련기관</u> 의 구조선들이 동원돼 인명 구조작업이 시작됩니다.
		○ 네, 한 때 매섭게 몰아 붙였던 비바람이 지금은 <u>소강상태</u> 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 4. 17.) ➔ 네, 한 때 매섭게 몰아 붙였던 비바람이 지금은 <u>조춤한 상태</u> 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 오후 들어, 구조가 속도를 내면서 초대형 참사의 <u>우려</u> 는 줄어드는 듯했습니다. (2014. 4. 16.) ➔ 오후 들어, 구조가 속도를 내면서 초대형 참사의 <u>걱정</u> 은 줄어드는 듯했습니다.
		○ 그 다음에 <u>대두된</u> 것이 무리한 방향 전환입니다. (2014. 4. 22.) ➔ 그 다음에 <u>나타난</u> 것이 무리한 방향 전환입니다.
SBS	8뉴스	○ [자막] 軍 수색작업 위해 <u>가용전력</u> 총동원 (2014. 4. 16.) ➔ 군 수색 작업을 위해 <u>이용할 수 있는 전력</u> 총동원
채널A	종합뉴스	○ 그 다음에 <u>대두된</u> 것이 무리한 방향 전환입니다. (2014. 4. 17.) ➔ 그 다음에 <u>나타난</u> 것이 무리한 방향 전환입니다.
JTBC	뉴스9	○ 잠수부 178명 동원... <u>일몰로</u> 수색 작업 난항 (2014. 4. 16.) ➔ 잠수사 178명 동원... <u>해가 진 후</u> 수색 작업 난항
		○ [자막] 경선 일정 연기... 정치권 ' <u>올스톱</u> ' (2014. 4. 17.) ➔ [자막] 경선 일정 연기... 정치권 ' <u>전면 중단</u> '
MBN	뉴스8	○ 원망스럽게도 <u>호전될</u>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 4. 17.) ➔ 원망스럽게도 <u>나아질</u> 김새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u>의구심</u> 부터 내놓습니다. (2014. 4. 19.) ➔ 전문가들은 <u>의심</u> 부터 합니다.
TV조선	뉴스1	○ 특별수사팀은 청해진해운과 <u>오너</u> 일가의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2014. 4. 21.) ➔ 특별수사팀은 청해진해운과 <u>소유주</u> 일가의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 순화어가 있는 외래어 사용

방송사	프로그램	내용
KBS	9뉴스	○ 이 때문에 구조 당국은 공기공급 <u>호스</u> 를 연결한 표면공급식 잠수방식과 공기통 잠수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 4. 19.) ➡ 이 때문에 구조 당국은 공기공급관을 연결한 표면공급식 잠수방식과 공기통 잠수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 실종자 가족들의 디엔에이(DNA) <u>샘플</u> 채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2014. 4. 19.) ➡ 실종자 가족들의 디엔에이(DNA) <u>표본</u> 채취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SBS	8뉴스	○ 대책 본부가 시신 인계 절차 같은 희생자 가족과의 약속 이행 <u>매뉴얼</u> 을 만들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014. 4. 21.) ➡ 대책 본부가 시신 인계 절차 같은 희생자 가족과의 약속 이행 <u>지침</u> 을 만들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채널A	종합뉴스	○ 내일로 예정된 공공기관장 <u>워크숍</u> 도 취소한 채 생존자 구출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014. 4. 16.) ➡ 내일로 예정된 공공기관장 <u>공동연수</u> 도 취소한 채 생존자 구출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을 제대로 <u>컨트롤</u> 하지 못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14. 4. 16.) ➡ 이런 상황을 제대로 <u>제어</u> 하지 못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JTBC	뉴스9	○ [자막] 선장 이씨, 경력 30년 ' <u>베테랑</u> ' (2014. 4. 16.) ➡ [자막] 선장 이씨, 경력 30년 ' <u>전문가</u> '
		○ 조금 전 <u>브리핑</u> 을 가졌는데요. (2014. 4. 16.) ➡ 조금 전 <u>기자회견</u> 을 했는데요.
MBN	뉴스8	○ 유 전 회장의 <u>페이퍼컴퍼니</u> 로 알려진 경기와 대구지역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4. 4. 28.) ➡ 유 전 회장의 <u>서류상 회사</u> 로 알려진 경기와 대구지역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뉴스1	○ 지금도 모든 상황을 실시간 <u>모니터링</u> 하고 있습니다. (2014. 4. 16.) ➡ 지금도 모든 상황을 실시간 <u>감시</u> 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수색작업이 본격화되는 <u>타이밍</u> 입니다. (2014. 4. 21.) ➡ 오늘은 수색작업이 본격화되는 <u>때</u> 입니다.

3. 재난방송언어 개선 방안

3.1. 개요

- 기본적으로 뉴스에서 신속성이 강조되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더불어 규범성과 용이성을 지키기도 어렵다. 경쟁이 가열되면 품격성과 공정성마저 무시하게 된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아널드 호윗^(Arnold Howitt)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커뮤니케이션 요소로 알고 있는 사실만 말할 것,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말할 것, 시민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할 것, 위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할 것 등을 요구한다. 재난방송에도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다. 기자가 ‘알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면 된다.
- 이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16일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하여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단체 5곳이 제정한 <재난 보도준칙>은 지금까지 발표된 재난보도의 원칙 가운데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방송인의 행동지침(취재지침)과 언어사용지침(보도지침)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언어사용지침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언어사용지침을 따로 떼어 보완하고자 한다.
- 예를 들어 <재난보도준칙> ‘제13조(유언비어 방지)’를 보면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출처를 밝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기본적으로 재난보도에서 정보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까닭은 재난 관련 정보의 신뢰성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의 말을 인용하되, 내용 확인 및 책임 소재 규명이 가능하도록 ‘정부’나 ‘군 당국’, ‘전문가’ 등 명확하지 않은 표현 대신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해군’, ‘안전관리전문가 시드니 데커^(Sidney Dekker, Griffith University) 교수’처럼 구체적인 기관명이나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관계자는 개인적인 주장을 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관명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이름과 소속, 직위 등을 언급해야 한다.

3.2.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1항 (규범적 표현과 자연스러운 표현) 재난방송은 재난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어문규범에 맞는 표현과 문장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앵 커] 오늘 안산올림픽기념관에 희생된 학생들의 임시 분향소가 설치되고요. 오전 9시부터 조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가 가족 대표와 어제 장례 절차를 합의했는데요. 대책본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종익 기자, 전해주시죠?

[기 자] 네, 밤사이 **사고대책본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는데요. 희생자 수는 이제 128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구조팀이 식당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식당과 선미 부분에 대한 집중 수색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대책본부측은 어제 저녁 희생 학생 가족 대표와 함께 장례 절차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먼저 팽목항 임시영안실에서 시신 검안이 이뤄지고, 희생자별로 안산으로 이동해 복지부가 마련한 영안실에서 가족장을 치르게 됩니다. (중략) 지금까지 정부 사고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KBS2 아침뉴스타임)

※ 위 뉴스는 정부 사고대책본부를 정보의 출처로 밝히고 있다. 출처는 앵커 소개와 기자 보도에 명시되어 있으며, 표기의 정확성 및 표현의 정확성에 관한 심각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에 대한’과 ‘에 관한’이라는 표현을 거듭 사용하고 있는데, “선미 부분에 대한 집중 수색이 실시된 것으로”는 “선미 부분을 집중 수색한 것으로”로, “장례 절차에 관한 합의문”은 “장례 절차 합의문”으로 고칠 수 있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1항 풀이

- [01-01] 어문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한다.
- [01-02] 문장성분의 호응(문장성분의 중복 및 생략, 의미의 중복, 조사의 오용, 부적절한 어휘의 사용, 부자연스러운 어순 포함)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제2항 (근거나 출처를 밝히는 표현) 재난방송은 재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앵 커]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현재까지 구조작업 성과가 있는지 알아보니다. 최광호 기자, 추가로 들어온 소식 있습니까?

[기 자] 네, 지금까지 집계된 공식 구조자의 숫자는 총 174명입니다. 3시간 정도 전에 **정부가** 164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10명이 늘어난 수치인데, 추가 구조자가 더 늘어난 것인지 집계상 오류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일부 언론에서 추가 사망자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해경**은 아직 공식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위 뉴스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정보의 출처로 밝히고 있다. 출처는 앵커 소개에 명시되어 있으며, 구조작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가 하면 해경의 공식 확인 절차까지 거쳤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2항 풀이

- [02-01]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한 표현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02-02] 정보의 출처를 밝힐 때는 정보를 얻은 기관명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정부’나 ‘군’, ‘외신’과 같은 통칭(統稱)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보다는 ‘해경’이나 ‘목포해경’, ‘목포해경 상황실’처럼 구체적인 정보의 출처를 밝힐 것을 권장한다. 정보의 출처가 개인일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실명과 소속, 직위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아울러 수식어로서 ‘전문가’보다는 ‘인명구조 분야 전문가’처럼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구체적으로 밝힌다. ‘일부 주민’이라는 표현처럼 정보의 출처로서 신뢰성을 주지 않는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02-03] 출처를 밝힐 때는 앵커 소개와 기자(혹은 리포터) 보도로 구조화된 뉴스 보도 연속체 중에 앵커의 말이나 기자(혹은 리포터)의 말을 통해 밝힌다.

[02-04] 방송 자막에서는 맨 앞에 심표로 구분하여 정보의 출처를 밝힌다. 다만 “정부, 항로 이탈 없었으나 해수부 권고 항로 벗어나”라는 표현을 대신해 “해경, 항로 이탈 없었으나 해수부 권고 항로 벗어나”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을 권장한다.

[참고] ‘재난보도준칙’ 제13조(유언비어 방지) 모든 정보는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제3항 (추측에 근거한 표현) 재난방송에는 가급적 추측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추측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측에 근거한 표현임을 밝혀야 한다.

[앵커]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정전이 됐고 구명정도 제대로 퍼지지 않아 배에서 탈출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인성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가 충격을 받고 급격히 기울어지는 순간. 승객들에겐 대피 명령이 아니라 일단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아 일부 승객들이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선 일시적으로 정전까지 발생해 대피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배가 기울어지면서 기관실에 물이 차 엔진이 멈춰 섰고 이에 따라 전기 공급도 끊겼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가 기울면서 받은 압력 때문에 객실 문이 잘 열리지 않았을 개연성도 큼니다. 힘들게 문을 열고 나온다 해도 크게 기울어진 복도를 걷기조차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까스로 객실을 빠져나온 승객들도 뗏목처럼 펼쳐져야 할 구명정이 퍼지지 않으면서 바다로 뛰어들어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 위 뉴스는 구체적인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세월호 대피 과정을 추측에 근거하여 밝히고 있는데, 전체 7개 문장 가운데 4개 문장에 추측 표지(‘추정되다’, ‘개연성이 크다’)를 명시해 놓고 있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3항 풀이

[03-01] 재난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는 재난방송의 목적과 무관한, 사고 원인이나 사고 과정을 추측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03-02] 재난방송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추측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추측에 근거한 표현임을 밝힌다.

[03-03] 추측에 근거한 문장과 정확한 출처에 근거한 문장을 함께 사용할 때는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각각의 문장에 추측 표지와 출처 표지를 밝혀야 한다.

[03-04] 추측에 근거한 표현에 주로 사용하는 서술어 중에 “추정되다, 예상되다, 제기되다”나 “지적이다, 분석적이다”, “보이다” 등의 피동형 서술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 ‘재난보도준칙’ 제14조(단편적인 정보의 보도) 사건 사고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

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항 (과장된 표현) 재난방송에는 재난 관련 상황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과장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앵 커] 아까 이다운 학생 이야기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아버지와 카톡을 나눈 학생으로 소개해드렸는데, 시신으로 확인돼서 **너무도**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좀 더 확인되는 대로 리포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오늘 하루 종일 파도가 셋기 때문에 구조작업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 자] 네, 맞습니다. 대책본부는 함정 171척, 항공기 29대, 잠수요원 512명을 총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세고,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2~3m로 높고, 바람도 초속 10~12m의 강풍이 불어서 수색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기 주입도 생각대로 되지 않았고, 내일 해상 크레인이 도착하는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거제와 진해에서 출발한 크레인 3대가 일정보다 빨리, 내일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차례로 도착해 인양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위 뉴스는 대책본부를 정보의 출처로 밝히고 있다. 출처는 기자 보도에 명시되어 있는데, 표현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너무’, ‘굉장히’, ‘거의’, ‘상당히’ 등의 강조 부사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4항 풀이

[04-01] ‘대형, 초대형, 최악의, 필사의, 너무’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과장 표현은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며,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제(2014. 4. 21.), 경향신문(2014. 4. 29.), 국민일보(2014. 6. 13.), 한겨레(2014. 12. 22.) 등에서는 세월호 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04-02] ‘아비규환’이나 ‘아수라장’, ‘눈물바다’, ‘총력’, ‘총출동’, ‘총동원’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5항 (추상적 표현) 재난방송에서 ‘피해 상황’은 추상적으로 표현해야 하지만 ‘구조 상황’을 추상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앵 커] 배 안에서 부상을 당하고 구조된 승객들도 많았습니다. 배가 빠른 속도로 기울어지면서 **떨어진 짐에 머리를 맞거나 일부는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기 자] 사고 접수 30분 만인 오전 9시 반, 세월호는 이미 60도 가량 왼편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바닥에 단단히 고정해두지 않은 음료 자판기 같은 **집기가 선실에 있던 승객들을 덮쳤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찢던 **여행 가방도** 둔기로 **돌변했습니다.** 배가 완전히 기울기 뒤에는 매달려 버티다가 떨어져 내리면서 허리와 다리 등을 다친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물에 뛰어든 경우에는 찬 바닷물에 몸이 굳는 등 저체온증을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화상을 입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배 안 주방이나 식당, 매점 등에서**

뜨거운 음식이나 물을 뒤집어쓰거나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쓸리는 과정에서도 승객들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객선 안에 있던 물건이나 기기는 물론 다른 승객, 그리고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바닷물까지 여객선 탑승자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 위 뉴스는 여객선 승객의 말을 정보의 출처로 삼고 있다. 출처는 기자 보도에 암시되어 있는데, 음료 자판기에 깔리고, 여행 가방에 맞아 쓰러지고, 뜨거운 음식을 뒤집어 써 화상을 입은 사람의 이야기는 '피해 상황'을 구체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하거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흥미 본위의 뉴스로 볼 수 있다.

[앵 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기 자] 오전 9시쯤 상황을 접수한 군 당국은 인근에 있던 해군 함정들에게 사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0시 10분쯤, 링스헬기를 시작으로 유도탄 고속함 한문식함과 고속정 10척 등이 속속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선체는 이미 45도 이상 기울어진 상황. 해군은 해양경찰과 함께 곧바로 조난자 구조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배가 뒤집히기 시작한 오전 11시쯤, 공군과 육군 전력까지 도착하면서 입체 작전이 벌어졌습니다. 구명보트 40여 대를 탑재한 C-130 수송기와 구조헬기 등이 김해공항에서 발진했고, 육군은 4척의 경비정과 특전사 신속대응 대원 150여 명, 군 의료 인력들을 보내 수색과 구호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서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상륙강습함정 '본험 리처드함'도 잠시 뒤 9시를 전후해 사고 해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는 해군 해난구조대 SSU와 해군특수전 전단 UDT 대원들을 급파했습니다. 세월호 탑승객 구조에는 해군 함정 23척과 군용기 12대, 병력 1천여 명이 동원됐고 청해진함과 독도함은 밤 12시쯤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재난대책 본부를 구성해 현장을 수색하고 있지만 날이 저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

※ 위 뉴스는 군 당국의 말을 정보의 출처로 삼고 있다. 출처는 앵커 소개와 기자 보도에 명시되어 있는데, 공군과 육군이 입체 작전을 펼친다거나 구명보트 40여 대를 탑재한 C-130 수송기와 해군 함정 23척 등을 투입하고, 특전사 신속대응 대원 150여 명과 해난구조대 SSU, 해군특수전 전단 UDT 대원 등을 급파한다는 이야기는 '구조 상황'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이렇게 수많은 장비와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취재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수동적인 뉴스로 볼 수 있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5항 풀이

[05-01] 구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조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구조가 완료된 후에 다루어야 한다. 구조 관련 정보는 현재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해자 가족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제공되어야 한다. 구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자 수나 명단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보다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05-02] 구조에 투입된 장비와 인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특히 동원된 인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수많은 구조인력이] 선체와 인근 해역에 투입되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선체에 투입된 구조인력이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제6항 (자극적 표현) 재난방송에서 ‘피해 상황’은 지나치게 자극적·극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앵 커] 선박이 기울고, 물이 차오르는 긴박한 순간에서도 학생들은 서로 괜찮냐며 물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홍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 자] 어제 오후 8시 20분쯤 인천항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세월호 안에 있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입니다. 사소한 잡담을 나누며 평온한 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오전, 상황은 180도 변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오전 9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먼저 괜찮냐며 안부를 묻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을 포함한 친구들의 상태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괜찮으세요?", "조끼는 입으셨나요?" 하며 선생님을 챙깁니다. 오전 9시 20분 선체가 흔들리고, 모두가 혼란스러운 순간에서도 이들은 "사랑한다", "살아서 만나자"며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오전 10시 45분, 배가 거의 바다로 침수된 상황에서도 친구들은 "괜찮니?"라며 서로 걱정했습니다. JTBC 홍상지입니다.

※ 위 뉴스는 단원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정보의 출처로 삼고 있다. 출처는 앵커 소개와 기자 보도에 명시되어 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남긴 채팅 내용이라는 점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살아서 만나자”라는 내용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다분히 시청률을 의식한 ‘흥미성’ 보도로 볼 수 있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6항 풀이

[06-01] ‘피해 상황’이나 ‘피해자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06-02] ‘피해 상황’이나 ‘피해자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지나치게 극적(극을 보는 것처럼 큰 긴장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참고] ‘재난보도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 피해자 가족의 오열 등 과도한 감정 표현, 부적절한 신체 노출,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 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자극적인 장면의 단순 반복 보도는 지양한다. 불필요한 반발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친 근접 취재도 자제한다.

제7항 (감정적 표현) 재난방송에는 앵커나 기자(혹은 리포터)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앵 커] 모두 자식 같고 동생 같은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못나고 나쁜 어른들이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흘째 밤샘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기쁜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조난 때 반드시 써야 할 비상 주파수조차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비상 주파수만 썼더라도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의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 자] 사고발생 당일 오전 8시 55분 세월호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조난을 알리는 첫 교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신이 이뤄진 주파수는 비상시 사용하는 게 아닌 평시에

교신하는 제주고유채널12번. 조난, 위급 시엔 채널 16번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유채널인 12번은 관제센터와 1:1 교신만 할 수 있는데 반해 채널 16번은 무선시설이 있는 인근 어선이나 관제센터들이 모두 수신, 청취하는 주파수로 비상상황을 전파해 조난선박의 빠른 구조를 돕습니다. 세월호 선장, 승무원이 기본적인 조난지침을 따르지 않고 버릇처럼 평상시 맞춰진 주파수를 사용한 겁니다. 첫 조난신고를 접수한 제주 해상관제센터는 사고지점에서 90킬로미터 거리. 수신감도가 좋지 않아 주파수를 몇 번 바꿨고, 여러 차례 교신을 시도하다 겨우 교신이 이뤄져 조난신고가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과 20킬로미터 거리에 있던 진도 관제센터에선 세월호의 조난 신호를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비상시 사고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성신호장치. 이퍼브도 세월호에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채널 A뉴스 김의태입니다.

※ 위 뉴스는 구체적인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앵커는 “모두 자식 같고 동생 같은 우리 학생들”이라며 앵커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로 뉴스를 시작하였고, 여론을 인용하여 “못나고 나쁜 어른들이 착하고 말 잘 듣는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안타깝다, 기쁘다’ 등의 감정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7항 풀이

[07-01]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갈등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주관적인 감정 표현을 절제해야 한다. 갈등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답답하다’, ‘안타깝다’ 등의 주관적인 감정 표현을 남용하는 것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객관성을 상실한 표현으로 간주된다.

[참고] ‘재난보도준칙’ 제16조(감정적 표현 자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냉정하고 침착한 보도 태도를 유지한다.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8항 (차별적 표현) 재난방송에는 일체의 차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앵 커] 구급차가 정말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되는군요. 지금 구조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시간쯤 전에 들어보니까 7시부터 좀 대규모의 구조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 자] 지금이 약 한 9시 2분쯤이니까 한 2시간 전에 지금 사고 지점에서는 21명의 전문잠수요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들 21명은 해경과 해군, 전문 잠수부대 특수요원들 17명 그리고 15년차 이상의 베테랑 민간 잠수부들인데요. 이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곳은 선박 3층에 있는 객실 부분입니다. 이 객실 안에는 지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탑승객들이 총 87명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잠수부들의 진입이 성공한다면 이들에 대한 생사 여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 뉴스는 구체적인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구조 상황과 관련하여 ‘전문 잠수부대 특수요원’이란 표현과 ‘베테랑 민간 잠수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군인이나 민간인이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냐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이냐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차별의 의도가 엿보이는 표현이다. 이러한 차별의 의도는 ‘머구리’라는 표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8항 풀이

[08-01]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차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차별을 금지한다.

제9항 (편파적 표현) 재난방송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앵 커] 가슴을 치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오늘 오락가락했던 피해 상황 집계는 피해 가족들을 두 번이나 울렸습니다. 집계가 혼선을 빚었던 이유도 여처구니없었습니다. 오지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 자] 혼선의 시작은 학교 측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학교 측은 오늘 오전 11시 6분 쯤, 학부모들에게 학생 등 탑승객 모두가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곧바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학교 측이 사고 현장 파악도 제대로 안 한 채, 단정적으로 공정한 사실이 들통 났습니다. 혼란을 키운 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4차 공식 브리핑을 한 지 3시간도 안 돼, 실종자 수를 107명에서 293명으로 번복했습니다. 구조자 이름만 확인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더 여처구니없는 건 오락가락 피해 집계를 놓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경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대형 참사만 나오면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의 안전도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에입니다.

※ 위 뉴스는 구체적인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피해 상황 집계는 오락가락이라는 점과 정부가 혼란을 키웠다는 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해경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정부를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9항 풀이

[09-01]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정부 포함)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일방적인 정부 비난은 일방적인 정부 편향과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한다. 공정성을 상실한 일방적 표현은 사회적·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기 때문이다⁵⁾.

제10항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재난방송에는 재난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앵 커] 구조작업을. 야간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보다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 구조작업 계획을 취재한 대로 전해 주실까요?

[기 자] 일단은 현재 선체 내의 수색작업을 중단한 이유는 내부가 워낙 시야가 흐리고 선체에

5)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참교육연구소가 수도권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세월호 사고 후 언론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이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사고 전 61.9%에서 사고 후 24.9%로 줄었고, “내가 위기에 처할 때 국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역시 46.8%에서 7.7%로 급락했다. (한겨레, 2014. 8. 20.)

물이 가득 차다 보니까 잠수 대원들이 실종자를 찾는 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벽 1시에 다시 수색을 재개하겠다는 건 물 흐름이 다소 잔잔해지는 정조 시간대이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에 조명탄을 쏘면서 내부 수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다만, 내일 오전부터 진도 일대 지역에 하루 종일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수색본부에서 예측하는 대로 과연 수색이 잘될지는 이제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 구조가 안 된 탑승객들이 저체온증이라든지 내부에서 질식사 때문에 생존에 점점 더 위험이 강해질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위 뉴스는 구체적인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구조 계획과 관련하여 ‘정조 시간’에 작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하는데, ‘정조 시간’이라는 전문용어를 순화된 표현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앞에 “물 흐름이 다소 잔잔해지는”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10항 풀이

[10-01] 재난보도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그 앞이나 뒤에 뜻을 풀어주는 말을 덧붙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순화어가 없는 ‘정조 시간’이나 ‘감압 챔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물 흐름이 다소 잔잔해지는 정조 시간”, “감압 챔버, 즉 감압실의 기능은”이라는 식으로 뜻풀이 표현을 앞이나 뒤에 붙여줄 것을 권장한다.

[10-02] 뜻풀이 표현은 앵커 소개와 기자(혹은 리포터) 보도로 구조화된 단일 뉴스 보도 연속체마다 붙여줄 것을 권장한다.

[10-03] 자막은 예외로 한다.

4. 결론

-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와 ‘구조당국, 선내 영겨있는 시신 다수 확인’, ‘해경, 오후 3시 49분 화물칸 진입 성공’이라는 오보와 ‘민관군 잠수부 수백명 투입’, ‘육해공 총동원, 하늘과 바다서 입체적 구조 작업’이라는 과장 보도를 쏟아내면서 언론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 ‘정부 발표와 취재원에 대한 검증 소홀’은 정보의 출처를 누락시키는 보도 관행 및 추측성 보도의 남발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보도 자체가 ‘재난’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였고, 시청자의 눈물샘을 자극하거나 호기심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표현과 감정적인 표현의 무분별한 사용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단체 5곳이 비윤리적 취재금지,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취재원에 대한 검증, 선정적 보도 지양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아 <재난보도준칙>을 마련하였고, 방송기자연합회,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등 언론 단체 10곳이 <재난보도준칙>의 준수 및 지지 의사를 밝혔다.
- 언론 단체 5곳이 제정한 <재난보도준칙> 중에 취재와 보도에 관한 일반준칙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자에게 이렇게 취재하라는 ‘행동에 관한 지침’(취재 지침)과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언어사용에 관한 지침’(보도 지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언어사용에 관한 지침이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 실제로 정확한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할 것(제3조), 긴급한 인명구조와 사고 수습에 지장을 주지 말 것(제4조),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제5조), 예방 정보를 제공할 것(제6조), 비윤리적 취재를 금할 것(제7조), 동의를 받아 통제지역을 취재할 것(제8조), 현장 데스크를 운영함으로써 현장 상황이 왜곡되지 않게 할 것(제9조), 무리한 보도 경쟁을 자제할 것(제10조), 피해 정보와 사고 정보는 재난관리당국의 공식 발표를 따르되 그 진위와 정확성을 최대한 검증할 것(제11조), 취재원을 검증할 것(제12조),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고 실명으로 보도할 것(제13조),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한 보도의 경우 그러한 사실을 알릴 것(제14조),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할 것(제15조),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간 즉흥적인 보도나 논평을 하지 말 것과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제16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을 것(제17조) 중에 언어사용에 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은 제13조부

터 제16조까지가 전부이다.

- 게다가 제13조 ‘정보의 출처를 공개할 것’이라는 내용은 구체적인 공개 원칙이나 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재난방송언어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원칙으로서 10개의 조항과 풀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1항 (규범적 표현과 자연스러운 표현) 재난방송은 재난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어문규범에 맞는 표현과 문장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1항 풀이

[01-01] 어문 규범에 맞는 표현을 사용한다.

[01-02] 문장성분의 호응(문장성분의 중복 및 생략, 의미의 중복, 조사의 오용, 부적절한 어휘의 사용, 부자연스러운 어순 포함)이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한다.

제2항 (근거나 출처를 밝히는 표현) 재난방송은 재난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2항 풀이

[02-01] 주관적인 생각에 근거한 표현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02-02] 정보의 출처를 밝힐 때는 정보를 얻은 기관명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정부’나 ‘군’, ‘외신’과 같은 통칭(統稱)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보다는 ‘해경’이나 ‘목포해경’, ‘목포해경 상황실’처럼 구체적인 정보의 출처를 밝힐 것을 권장한다. 정보의 출처가 개인일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실명과 소속, 직위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아울러 수식어로서 ‘전문가’보다는 ‘인명구조 분야 전문가’처럼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 구체적으로 밝힌다. ‘일부 주민’이라는 표현처럼 정보의 출처로서 신뢰성을 주지 않는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02-03] 출처를 밝힐 때는 앵커 소개와 기자(혹은 리포터) 보도로 구조화된 뉴스 보도 연속체 중에 앵커의 말이나 기자(혹은 리포터)의 말을 통해 밝힌다.

[02-04] 방송 자막에서는 맨 앞에 심표로 구분하여 정보의 출처를 밝힌다. 다만 “정부, 항로 이탈 없었으나 해수부 권고 항로 벗어나”라는 표현을 대신해 “해경, 항로 이탈 없었으나 해수부 권고 항로 벗어나”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을 권장한다.

제3항 (추측에 근거한 표현) 재난방송에는 가급적 추측에 근거한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추측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는 추측에 근거한 표현임을 밝혀야 한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3항 풀이

[03-01] 재난이 발생한 초기 단계에는 재난방송의 목적과 무관한, 사고 원인이나 사고 과정을 추측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03-02] 재난방송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추측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추측에 근거한 표현임을 밝힌다.

[03-03] 추측에 근거한 문장과 정확한 출처에 근거한 문장을 함께 사용할 때는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각각의 문장에 추측 표지와 출처 표지를 밝혀야 한다.

[03-04] 추측에 근거한 표현에 주로 사용하는 서술어 중에 “추정되다, 예상되다, 제기되다”나 “지

적이다, 분석적이다”, “보이다” 등의 피동형 서술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4항 (과장된 표현) 재난방송에는 재난 관련 상황을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과장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4항 풀이

[04-01] ‘대형, 초대형, 최악의, 필사의, 너무’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과장 표현은 국민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며,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이성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제(2014. 4. 21.), 경향신문(2014. 4. 29.), 국민일보(2014. 6. 13.), 한겨레(2014. 12. 22.) 등에서는 세월호 보도를 접한 일반 시청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04-02] ‘아비규환’이나 ‘아수라장’, ‘눈물바다’, ‘총력’, ‘총출동’, ‘총동원’ 등 재난 관련 정보를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5항 (추상적 표현) 재난방송에서 ‘피해 상황’은 추상적으로 표현해야 하지만 ‘구조 상황’을 추상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5항 풀이

[05-01] 구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조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구조가 완료된 후에 다루어야 한다. 구조 관련 정보는 현재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해자 가족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제공되어야 한다. 구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해자 수나 명단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보다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05-02] 구조에 투입된 장비와 인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특히 동원된 인원의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수많은 구조인력이] 선체와 인근 해역에 투입되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선체에 투입된 구조인력이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제6항 (자극적 표현) 재난방송에서 ‘피해 상황’은 지나치게 자극적·극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6항 풀이

[06-01] ‘피해 상황’이나 ‘피해자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시청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06-02] ‘피해 상황’이나 ‘피해자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지나치게 극적(극을 보는 것처럼 큰 긴장이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제7항 (감정적 표현) 재난방송에는 앵커나 기자(혹은 리포터)의 개인적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7항 풀이

[07-01]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갈등 사안을 다룰 때는 공정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주관적인 감정 표현을 절제해야 한다. 갈등 사안을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답답하다’, ‘안타깝다’ 등의 주관적인 감정 표현을 남용하는 것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객관성을 상실한 표현으로 간주된다.

제8항 (차별적 표현) 재난방송에는 일체의 차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8항 풀이

[08-01]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차별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서 차별을 금지한다.

제9항 (편파적 표현) 재난방송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9항 풀이

[09-01]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정부 포함)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일방적인 정부 비난은 일방적인 정부 편향과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한다. 공정성을 상실한 일방적 표현은 사회적·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기 때문이다.

제10항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한자어) 재난방송에는 재난 정보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재난방송언어 사용 지침 제10항 풀이

[10-01] 재난보도에는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그 앞이나 뒤에 뜻을 풀어주는 말을 덧붙여야 한다. 예를 들어 순화어가 없는 ‘정조 시간’이나 ‘감압 챔버’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물 흐름이 다소 잔잔해지는 정조 시간”, “감압 챔버, 즉 감압실의 기능은”이라는 식으로 뜻풀이 표현을 앞이나 뒤에 붙여줄 것을 권장한다.
[10-02] 뜻풀이 표현은 앵커 소개와 기자(혹은 리포터) 보도로 구조화된 단일 뉴스 보도 연속체마다 붙여줄 것을 권장한다.
[10-03] 자막은 예외로 한다.

참고문헌

- 강진아(2014), 카메라만 들면 고성... 언론 불신에 기자들도 자성, 월간 「신문과 방송」 5월호, 한국언론진흥재단, 19~22.
- 김경환 역(2012), 「재해보도와 미디어」, 논형.
- 김경환(2014), 보도량만 많고 정확한 정보는 드물어, 월간 「신문과 방송」 5월호, 한국언론진흥재단, 6~9.
- 김대행 외(2004),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병길(2004), 방송언어의 평가지수 측정: 뉴스보도와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편, 방송언어 방송화법 평가지수 개발 및 주요 프로그램 방송인 평가.
- 김상준(2005), 「남북한 보도방송 언어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상준(1997), 방송언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훈저널」 64, 관훈클럽, 189~200.
- 김성해(2014), 차분한 보도는 기본, 신뢰·정확성 최고 가치, 월간 「신문과 방송」 5월호, 한국언론진흥재단, 10~14.
- 김한샘(2011), 방송언어의 공공성 진단 기준, 「반교어문연구」 30, 반교어문학회, 37~59.
- 김현주(2006), 방송언어의 공공성 훼손 사례와 개선 방안,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방송학회, 590~601.
- 나미수(2012), 「미디어 연구를 위한 질적방법론」, 커뮤니케이션북스.
- 민현식(1999), 방송언어론, 국어화법과 방송언어, 「화법연구」 1, 한국화법학회, 47~143.
- 박갑수 외(2001), 「방송 화법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 박덕유 외(2014), 저품격 언어의 분석적 고찰: 방송언어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30, 한국중원언어학회, 45~73.
- 백선기, 이옥기(2011), 한국 언론의 재난보도 양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신문의 내용 분석과 보도 양태를 중심으로, 제17회 한일 국제심포지엄, 23~57.
- 백선기, 이옥기(2013), 재난방송 보도에 대한 국가별 채널 간 보도태도의 비교연구: KBS, NHK, CNN의 일본 대지진 방송보도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 한국언론학회, 272~304.
- 송용희(2007), 언론의 현실해석과 객관화 담론전략: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2004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 관련 해설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1, 한국언론학회, 229~251.
- 심석태 외(2013), 「방송 보도를 통해 본 저널리즘의 7가지 문제」, 걸쳐룩.
- 심석태 외(2014), 「방송 뉴스 바로하기」, 걸쳐룩.
- 유승관(2014), 외국의 재난보도 기준 및 보도사례, 「언론」 131, 언론중재위원회, 18~27.
- 윤재홍(2005), 한국지상파 방송 3사의 방송뉴스언어 선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4, 한국소통학회, 104~129.
- 이동훈 외(2006), DMB를 활용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소장방재청.
- 이연(2014), '신속정확, 피해자 중심, 인권 보호' 3원칙, 월간 「신문과 방송」 5월호, 한국언론진흥재단, 15~18.
- 임태섭(1999), 보도·교양 언어의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한국방송학회, 1-40.
- 이주행·류춘열(2004), 방송언어의 평가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연구보고서, 한국소통학회, 2-90.
- 정수희(2007), 방송언어의 규범과 언어 변화 - 발음과 어휘(외래어)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24·25, 이화어문학회, 41~61.
- 조민하(2013), 방송언어의 비표준어 사용 실태 조사를 통한 정책적 제안, 「사회언어학」 21-1, 한국사회언어학회, 271~299.
- 주창윤 외(2013), 방송 프로그램 품위지수 개발 및 조사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89.
- 차재은(2003), 언어 규범과 방송 언어의 오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방송언어와 국어연구」, 월인.
- 최인자(2000), 재난보도에 나타난 TV 뉴스와 서사적 특성, 「국어교육」 10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최진근(1993), 방송언어의 어휘 연구, 『우리말글』 11, 우리말글학회, 49~84.

한국방송학회 편(2000), 「방송보도론」, 나남.

후지모토 도시카즈(2011), 일본의 매스컴은 동일본대지진을 어떻게 보도했는가?, 웹진 통권 119, 언론중재위원회, 74~79.

Deborah Potter & Sherry Ricciardi(2010), Disaster and Crisis Coverage, International Center for Journalists. http://www.icfj.org/sites/default/files/Disaster_Crisis.pdf

[ABSTRACT]

2014 Broadcasting language improvement project

A study on the use of language in disaster broadcasting and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This study, as part of the Language Culture Improvement Movement, examines the language use in disaster broadcasting with the aim of preparing guidelines for appropriate language use in disaster news reporting. The analysis is carried out on news report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between April 10, 2014 and April 30, 2014 by four terrestrial broadcasters(KBS1 News 9, KBS2 Morning News, MBC Newsdesk, SBS 8 News) and four general cable TV channels(ChannelA News, MBN News 8, JTBC News 9, TV Chosun News1).

The collected news reports are transcribed using broad transcription,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following five criteria: normativeness(ungrammatical or unnatural expressions) accuracy(unfounded or unsourced information, conjectures, exaggeration, or abstruse expressions), decency(sensational or crude language), fairness(emotionally-charged, discriminatory, or biased language), comprehensibility(hard to understand terminology or Chinese and foreign wor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9.3% of abstract words, 13.8% of obscure Chinese and foreign words, 12.9% of conjecture words, 10.7% of sensational language, 9.4% of biased language, 8.2% of unfounded or unsourced information, and 6.3% of exaggerated word. The investigation reveals the overuse of difficult Chinese and foreign words, use of unsourced information, overly graphic description of the situation in order to provoke viewers, and employment of derogatory language to mock the government and rescue authorities.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measures for improvement are proposed:

(01) disaster broadcasting should use language whose sentence constituents grammatically and semantically agree with each other for the speedy delivery of relevant information

(02) disaster broadcasting should reveal details of the source of information.

(03) disaster broadcasting should refrain from using conjectures, and

acknowledge their use if unavoidable.

(04) disaster broadcasting should not exaggerate in order to stress or highlight 'a certain situation'.

(05) disaster broadcasting should be general in reporting 'the situation of damage', and be specific in reporting 'the rescue situation'.

(06) disaster broadcasting should not be too graphic in describing 'the situation of damage'.

(07) disaster broadcasting should not use emotionally-charged language betraying personal feelings of an anchorperson or reporter.

(08) disaster broadcasting should never use discriminatory language.

(09) disaster broadcasting should not use language which is prejudiced against certain individuals or groups.

(10) disaster broadcasting should use plain language for accurate delivery of information.

Keywords: the Sewol ferry, disaster broadcasting language, hard to understand foreign and Chinese words, specification of sources of information

Project Director: Kim Mi Hyung(Sangmyung University)

<부록> 방송사별 재난방송언어 오용 사례

연구책임자: 김미형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서은아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조교수)
 김형주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교수)
연구보조원: 최민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주재희 (상명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졸업)

연구담당자: 이윤미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학예연구사)

발행인	민현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팩스 02-2669-9727
인쇄일	2014년 12월 26일
발행일	2014년 12월 26일
인 쇄	가람기획

※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한 ‘2014 방송언어개선사업: 재난방송언어 사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